

나눔과 치움

NH농협금융사회공헌 이야기





농업과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사회공헌 이야기
채움

CONTENTS >

04 CEO MESSAGE

06 Photo-essay NH농협금융의 미소 그리고 손길

12 기획 1 NH농협금융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16 **힘모아 같이** 농업·농촌

48 **더불어 같이** 지역사회·복지

80 **미래로 같이** 교육·스포츠 육성

104 **언제나 같이** 의료·건강·실버

120 기획 2 범농협의 아름다운 발걸음

130 Appendix NH농협금융 법인별 사회공헌 소개

| 사회공헌 가치체계 |

NH농협금융은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행복을 채우는 금융]이라는 모토 아래,
[같이의 가치]를 깊이 새겨 실천해 나감으로써,
농업·농촌·농업인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고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다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다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핵심가치

“같이의 가치” 실천

모 토

행복을 채우는 금융

기본철학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

| 주요 활동 부문 |

농업·농촌

지역사회·복지

농협금융의
사회공헌

교육·스포츠 육성

의료·건강·실버



CEO MESSAGE



“우리 NH농협금융은
기쁨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금융기관으로서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NH농협금융지주의 1사촌 자매마을인 강원도 홍천 왕대추마을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도 돕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도시의 소외계층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나눔 활동을 통해 저와 우리 임직원들은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즉 '같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큰 것인지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2012년 사업구조개편으로 재탄생한 우리 NH농협금융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각종 정책금융 수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 지원은 물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100% 국내자본으로 구성된 NH농협금융은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 수익의 대부분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금융기관입니다. 그 결과 NH농협금융의 주력 자회사인 NH농협은행은 2011년도부터 3년 연속 사회공헌 1등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 부각됨에 따라 실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행복채움금융교실 등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농협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고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이종룡



서로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와 같이

나누는 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이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이 고객과 같이 걸어가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같이 손을 잡고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서로 같이 어울릴 때,
다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는
지금 여기에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짓는 이들,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바로 NH농협금융의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따스한 손길과 같이

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모두 누군가를 위해 소중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손들입니다.

손마디의 생김새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일손을 거두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연탄을 나릅니다.

쓱쓱삭삭 맛나게 김치를 담고, 밥 한 끼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내가 아는 걸 다른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크지 않은 두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나눔은 나눔을 낳습니다.

나눔의 손길은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어느새 행복의 이름드러가 됩니다.

NH농협금융이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NH농협금융과 같이

혼자 걸어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질없기만 합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은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건 서로 채워주면 됩니다.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토닥토닥 위로해주며 걸어가는 길은

행복한 동행의 길입니다.

NH농협금융의 존재 이유는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농촌·농업인 그리고 지역사회·고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NH농협금융의 '같이의 가치'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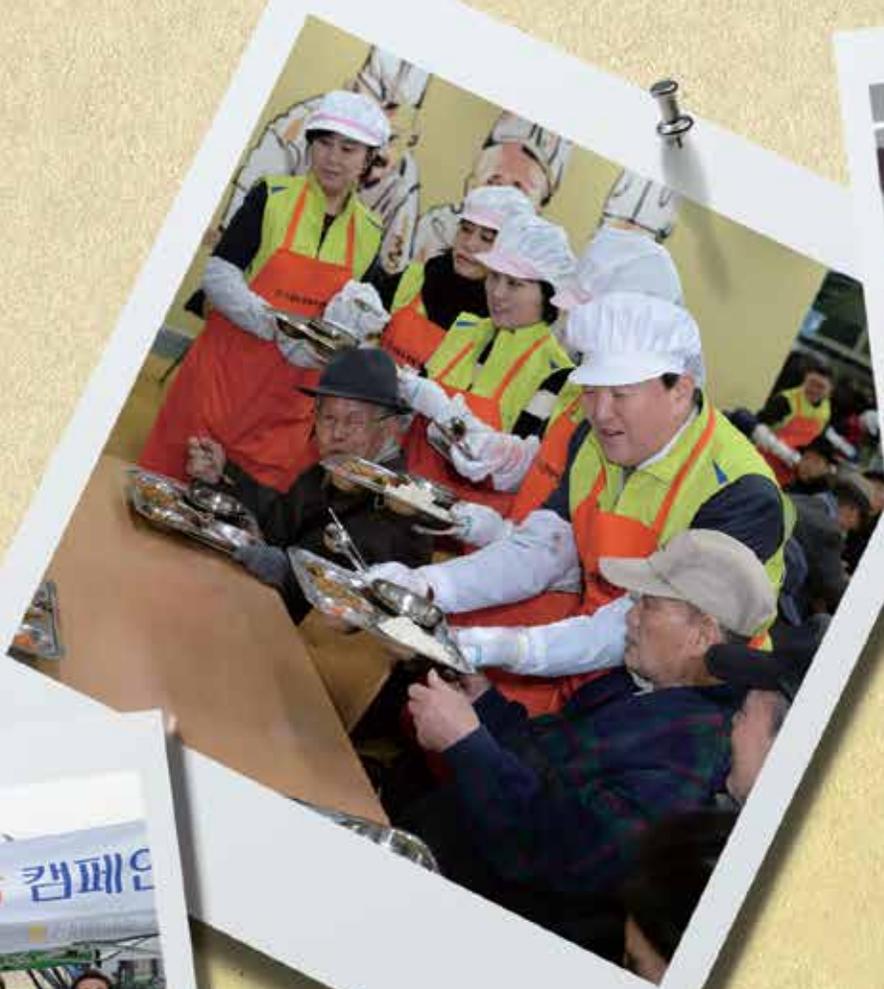
NH농협금융은 수익 전액을 고객·농업인·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대표 금융기관으로, 사회공헌 자체가 존재의 이유다. 국내 유일 100% 민족자본으로 이뤄진 만큼 NH농협금융은 하나라도 더 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이 강조하는 '행복채움금융'은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해 함께 나누고 행복을 채우자는 의미다.

농업인·서민·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고객행복경영 등 '다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NH농협금융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사업구조개편과 함께 NH농협금융의 사회공헌활동 역시 한 단계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NH농협금융은 따로 또 같이 연중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회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실시하는 봉사활동이 있는가 하면 전문 지식을 활용한 금융교육, 무료 의료지원,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어르신 말벗 도우미 등 법안별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에서 3년 연속 사회공헌 1등을 차지했으며, 범농협 임직원이 전사적인 사회공헌 실천으로 봉사한 시간만도 2013년 76만 시간에 달했다.





농협의 정과 사랑을 가득 담아

NH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해 자회사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사회공헌활동에는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헌혈, 연탄 나눔 등이 있다. 전 자회사 사장단과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 더 큰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는 2014년 12월 NH농협금융지주와 10개 자회사 임직원 100여 명이 농협본관 대강당에 모여 실시했다. 하얀 장갑을 끼고 몇 시간에 걸쳐 NH농협금융 임직원들이 부지런히 상자 안에 쌀, 고구마, 단감, 햄, 김 등을 담자 어느새 1600개의 상자에 사랑이 빼곡히 담겼다. 이날 만든 꾸러미들은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쪽방 상담소 등 9개 복지시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전달되었다. 이 행사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겨울철 도시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 2014년 2~3월에는 겨울철 혈액 부족 해소 및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 캠페인을 중앙본부를 시작으로 전사적으로 벌여 작지만 큰 사랑의 실천을 행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NH농협금융지주와 7개 자회사 임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연탄 기증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3만 4000장의 연탄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기증했으며, 2012년에는 2만 장의 연탄을, 2013년에는 2만 7000장의 연탄을 남태령 전원마을에 기증한 바 있다.



교육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

NH농협금융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 NH농협은행은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금융재테크, 우리아이 미래설계,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재능기부 금융교육인 '행복채움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행복채움금융 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교육기부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역시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을 농촌지역 소재 특성화고에서 열고 있으며, NH농협생명은 교육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및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꿈나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의 우수 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비 일체를 지원하는 '희망나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전 자회사가 앞다투어 사회공헌에 나서

NH농협생명은 의료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의료지원사업에 집중해 2013년도에만 15회, 750건이 넘는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만 명이 족히 넘는다. 또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축산 농가를 위한 축사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험 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행복채움 실버 프로젝트'를 경로당,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격하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의 사회공헌활동은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다. 그동안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NH농협금융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함께.





Hand in hand

힘모아 같이



농업 · 농촌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
 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 곳
 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치
 시,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NH농협금융 역시 농촌을 뿌리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의 사랑은 언제나 농촌을 향하고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을 하고 고향의 부모님을 뵈러가듯 자매마을을 찾습니다. 농번기에도, 흉수·태
 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어려울 때도, 혹은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그리워 찾아갑니
 다. 직거래도 하고 마을에 예쁜 그림도 그립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이 시처럼 미양
 행복하지 않기에, 농사 짓는 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에, NH
 농협금융의 농촌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 일손 돕기, 1사1촌, 재해 지원, 도농 상생 협력 등 |



함께 땀 흘리며 썩아가는 두터운 정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의 뿌리인 농촌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농번기나 장마철 등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농촌으로 달려가 작으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촌 자매결연 마을과 함께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앞으로도 농촌사랑 운동에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및 도시방문, 자연보호활동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원과 협력을 이루어갈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요
태풍 불라벤과 덴빈 피해 복구 지원**

으르렁거리던 하늘은 구멍이 뚫린 듯 폭우를 퍼부었고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겠다는 기세로 세차게 불었다. 2012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불라벤과 뒤이은 덴빈은 아름드리나무도 전봇대도 무참히 쓰러뜨렸고 지붕도 비닐하우스도 날려버렸다. 농업인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와 전 자회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임직원 봉사 활동은 물론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했다. 2012년 9월에는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 30여 명이 태풍 피해를 입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무너진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 재무관리본부 직원들이 1사1촌 자매마을인 경기도 화성시 신외통 마을 농가를 찾아 낙과 수거 등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왕대추처럼 달콤한 사랑이 익어가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강원도 홍천군 동면, 구름도 얹아 쉬어간다는 좌운리. 넓고 아름다운 저수지와 마을을 푸근하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고,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금계천 주변에는 왕대추나무가 자라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곳 아름다운 왕대추마을과 2013년 7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의 교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자매결연식에는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 홍천군수, 홍천군의회 의장, 왕대추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NH농협금융지주는 마을회관에 대형 TV와 사무용 복사기를, 생활 형편이 어려운 마을의 독거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에 쌀과 진공청소기를 지원했다. 또 임직원들은 함께 모종 심기, 감자 캐기, 마을 환경미화 작업 등을 실시하고 마을주민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NH농협금융지주는 "앞으로 마을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소비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왕대추마을에서 생산되는 감자, 옥수수, 고추 등 농산품을 구매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농촌 현장체험과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 마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2013년 9월 왕대추마을 주민 70여 명을 서울로 초청해, 농업박물관과 국회 의사당, 농촌 선도마을인 이천 부래미 마을을 견학하고, 농촌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영일 박사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수해 복구에 농업인 팔 걷어붙였다!
폭우 피해 농가 총력 지원**

2013년 여름 중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와 강원 곳곳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작물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농업인들이 너무나 많았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3년 7월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금시농협 관내 참외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농협증권 등 자회사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직원까지 참여해 범농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 80여 명은 침수된 농작물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파손된 자재 철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복구 작업을 집중 지원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피해 농가와 주민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실시했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대출만기 도래 시 일부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주었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수해 피해자에 대해 보험료 및 보험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했다.

황금 들녘 꿈꾸며 흘리는 구슬땀 모내기 등 영농철 일손 돕기



법씨를 뿌려놓은 못자리에서 파릇파릇 모가 싱그럽게 자랐다. 바야흐로 모내기철이 온 것이다. 모 내기는 농사일 가운데서도 품앗이를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4년 5월 1서촌 자매마을인 강원도 횡천 왕대추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부족한 일손을 보탤었다. 이날 임직원들은 모판을 나르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손으로 모를 심으면서 농사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5월을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집중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모내기 외에도 일손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갔다. 재무관리본부 직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장에서 장마철을 대비해 하우스 배수로 정비작업을 실시했고, 경영기획본부 직원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배농장에서 열매숙기 작업을 도왔다.





배꽃 사이를 나는 꿀벌이 되어 범농협 차원 농촌 일손 돕기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배꽃이 만개한 사나흘 동안이 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수나무에서 꽃가루를 채취해 암나무의 꽃에 뿌려주는 화접(인공수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경제지주 및 관련 자회사 임직원 80여 명은 2013년과 2014년 4월 경기도 안성과 충남 아산 등 배 주산지를 찾아 배꽃 화접작업을 하며 영농철 일손을 도왔다. 화접 작업은 일 년 중 배꽃이 만개한 후 3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작업인데, 벌, 나비 등 수분을 해주는 곤충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 사람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참가한 임직원들은 “하루 종일 배나무를 올려다보며 작업을 하느라 목과 어깨가 많이 아팠지만 농가에 일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여서 참으로 보람찼다. 게다가 이번 일손 돕기는 농협이 사업 부리를 한 후 전 계통이 모두 모인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등 범농협 임직원 80여 명은 2014년 6월에는 경기도 평택 월곡동 일대의 배 과수 농가를 찾아 배 새순치기를 하며 일손 돕기를 실시하기도 했다. 알맞은 시기의 영농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노란 해바라기로 이루는 화합 농촌마을 환경 개선 위한 벽화 그리기

NH농협금융지주의 자매마을인 강원도 홍천의 왕대추마을에 노란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와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성한 해바라기였다.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증권,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40여 명은 2014년 7월 왕대추마을을 찾아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다. 벽화는 ‘화합의 해바라기’를 주제로, 왕대추마을의 동면농협 건너편 농협창고 전면에 20m×4m 크기로 그려졌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였지만 왕대추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일조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농촌마을 환경 개선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땀 흘리다 보니 화합이 절로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2014년 9월에는 ‘1사촌 자매마을 추석맞이 주민 한마당 노래자랑’을, 2014년 10월에는 ‘1사촌 자매마을 주민 요리경연대회’를 열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마을회관에 공동 화장실을 신축 지원하고, 국악공연을 열어 마을

어르신들을 위로했으며, 마을에 위치한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에 과학교구를 지원했다.



웃음도 눈물도 함께할 때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은행

농협의 뿌리이자 근간인 농촌이 여러모로 힘든 시기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니 농촌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져 농번기만 되면 일손이 모자란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도 있을라치면 더욱 그러하다. NH농협은행은 우리 농촌을 위하여 1사촌 자매결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진행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공동체 발전 등 민족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만사 제치고 농촌으로!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 실시

한 명이 아쉬운 농번기 때 농촌에 필요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일손을 보태는 것이다. 그래서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농촌 일손 돕기를 농협은행 직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NH농협은행이 실시한 봉사활동 통계자료로도 증명된다. 2012년 출범 이후 총 1312건의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총 참여인원은 7610명, 총 봉사시간은 4만 7368시간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은 신입사원 때부터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신입사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여 자매결연 마을인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등 충북도내 5개 지역 15개 농가를 찾아 감자 캐기와 제초작업 등을 실시했고, 2013년 11월에는 특성화고 졸업 신입사원 87명이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농가를 찾아 무 뽑기, 무청 자르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 이유진 주임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좋았고, 농업인의 어려움과 농업 생산물의 소중함 등 많은 것을 몸으로 배우고 느꼈다.”고 감회를 밝혔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7년째 이어온 농촌지역 독거 어르신 말벗 서비스

“아유, 당연히 좋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 살갑게 안부를 묻는데 혼자 쓸쓸하게 살다보니 그게 정말 큰 위안이 돼요.”

NH농협은행은 ‘독거 어르신 말벗 서비스’를 2008년부터 7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객행복센터 전화상담사들이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를 걸어 따뜻한 말벗이 되어 주는 봉사활동으로, 2014년 10월 현재 말벗 서비스의 대상자는 1393명에 달한다. NH농협은행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인 말벗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소외감 극복에 도움을 드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 중에 접수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여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생활정보와 금융사기 대응법 등을 알려드리기도 한다.

말벗 서비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는 “일주일 동안 뭘 하며 지내셨는지 물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하세요. 딸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석유가 떨어져 방이 냉골이라는 할아버지한테는 주유소에 대신 전화해 석유 배달을 해드리는 등 심부름꾼 노릇도 하지요. 이렇게 미약하나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자긍심을 느껴요.”라고 소회를 털어냈다.

말벗 서비스는 전화로 그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어르신을 초청해 위로잔치를 열고 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불, 내의, 김치 등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말벗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농업인의 이픔을 함께 나누다 태풍 피해 복구 인력 및 자금 지원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한 이후 NH농협은행은 직원 단합을 위한 모든 체육행사를 취소했다.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은 2012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지원활동에는 전국의 NH농협은행 사무소 직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태풍 피해를 당한 농가에서 낙과 수거 및 포장, 벼 세우기, 비닐하우스 철거, 고추 따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집중 지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1000억 원 한도로 긴급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자금은 3억 원, 가계자금은 3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포인트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최장 15년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며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 납부를 미뤄줬다. 또 대출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고,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유예해주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폭설 피해 복구 인력·장비·자금 총 투입

말 그대로 눈 폭탄이었다. 2014년 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불가항력적인 폭설로 인해 수백 농가에서 농업 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폭설 피해 지역인 강원 8개 시·군과 경북 북동부 지역에 굴착기와 페이로더 등 제설 중장비를 투입해 적극적인 복구 활동을 전개했고, 임직원들은 하우스 지붕과 농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 제설 작업에 힘을 쏟았다. 또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가에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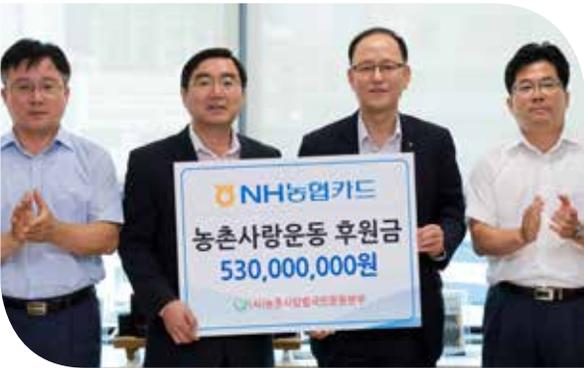
NH농협은행은 폭설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주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도 실시했는데, 가계 자금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 원, 기업 자금은 최고 3억 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014년 초 여수 지역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서도 대출 지원을 실시했다.



도시와 농촌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 NH농협카드, 2008년부터 농촌사랑운동 지원

농협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NH농협카드가 2008년부터 농촌사랑기금 적립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의 일이다.

농촌사랑운동은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을 가꾸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랑나눔 실천운동으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1사촌 운동 등 다양한 도농 교류 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는 단체다.

NH농협카드는 2014년 7월 카드공익 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 5억 3000만 원을, 2013년 11월에는 5억 7000만 원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농촌사랑카드 및 농촌사랑클럽체크 카드를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으로,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농업인 실의 사업, 소식지 발간, 농촌체험 행사 등 농촌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여름 밤에 울리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전국 8개 농어촌 지역 무료 뮤지컬 공연**



도시에 살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를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들어야 할 것 같다.

NH농협은행은 2014년 7~8월 전국 8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여름 밤 뮤지컬' 공연을 무료로 개최했다.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NH농협은행이 주최했으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연은 강원 강릉, 전남 영광, 전북 완주, 경남 양산, 충남 부여, 전북 부안, 경북 성주, 충남 보령 등 전국 8곳에서 펼쳐졌다. 공연된 뮤지컬은 국내 첫 나비박사로 불린 석주명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닥터 버터플라이'였다.

NH농협은행은 문화 예술 사각지대의 농업인을 위해 뮤지컬 외에도 클래식, 국악, 가요 등 다양한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공연과 함께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풍물놀이, 관객 참여 즉흥무대 등 다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끌어올렸다. 2013년 한 해 동안 NH농협은행이 주최한 30회의 무료 공연을 통해 1만 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농촌사랑으로 뿌리부터 튼튼한 사회 만들기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1961년 종합농협 창립 이후부터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실시해 온 나눔 경영의 뜻을 이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농촌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NH농협생명은 농촌, 농업인과 상생하는 '내맘같이 & 상생 마케팅'이 우수한 공익마케팅 사례로 선정되어 2014년 제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사회공헌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NH농협생명은 기업의 근간이 농촌과 농업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농업인을 돕고 농업인과 함께 나누고 농업인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잡초 뽑으며 풍성한 수확 기원해요
5월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 돕기

양복과 구두 대신 작업복에 운동화를, 볼펜 대신 삽을 잡았다. 농번기를 맞아 농가에 필요한 일손이 되기 위해서였다.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2012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시설 보수와 고랑 제초 작업을 도왔다.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으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한 것이다. NH농협생명은 이날 농촌 일손 돕기를 계기로 주말농장, 귀농 사업 등과 연계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는 농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임직원 모두가 농업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느끼며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젊은 일꾼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NH농협생명만이 가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좋은 무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 허리 펴 볼 시간도 없이 구슬땀을 흘렸다. 우리의 노력이 농업인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저녁을 선물할 수 있었기에 더욱 값진 시간이었다.” 고 입을 모았다.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사고!
농협중앙회 농산물 상생마케팅 참여

“NH농협생명이 고객님의 건강한 식탁과 같이 합니다”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은 참외와 양파 봉지가 불티나게 팔렸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3월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상생마케팅 행사에 동참했다. 상생마케팅이란 기업의 후원을 받아 농산물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농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후원기업은 이름이나 홍보 문구를 농산물 포장에 부착해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신개념 판매기법인 것이다.

NH농협생명이 후원한 물품은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을 겪은 참외와 양파로, 2억 원을 후원했다. 이 후원으로 소비자는 기존 소매매장 판매가격 대비 참외 2kg를 2000원, 양파 1kg를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후원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2013년 11월 상생마케팅의 첫 후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감귤 농가를 위해 2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농협생명의 첫 참여 이후 CJ제일제당, LS엠트론, 홈앤쇼핑 등 20여 개 업체가 상생마케팅에 동참해 모두 15억여 원이 농산물 값을 지지하는 밑거름으로 쓰였다. NH농협생명은 앞으로도 상생마케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농업인과의 행복한 동행에 앞장설 계획이다.





바구니 한가득 보랏빛 희망이 넘실! 블루베리 재배 농가 수확 돕기

보랏빛의 탱글탱글한 블루베리가 탐스럽게 달렸다. 노화 예방과 시력 회복에 좋아 슈퍼 푸드로 인기가 좋은 블루베리는 고소득 작물이지만 기계로는 수확이 어려워 일일이 손으로 수확해야 한다. NH농협생명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느라 모두의 얼굴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달콤한 블루베리가 바구니를 하나 가득 채울 때마다 웃음도 보람도 커져 갔다. 이날 참가한 임직원들이 수확한 블루베리는 무려 500kg나 되었다. 일손 돕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농사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허리도 팔도 많이 아팠지만 땀 흘리면서 농업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활짝 핀 해바라기와 함께 동지에 다지기 3사가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실시

해바라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마을에 NH농협금융 3사 임직원이 모였다. 함께 일하고 땀 흘리면서 NH농협금융 자회사 간 유대와 협동의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NH농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NH저축은행의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8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해바라기 마을을 찾아, 해바라기 씨를 수확하고 줄기를 베어내는 등 일손을 보탤다. 해바라기마을 이장은 “전날 많은 비가 쏟아져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수확하다니 놀랍다. 정말 고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NH농협생명은 2015년 상반기 우리아비바생명과 통합하기에 앞서 양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빨간 사과만큼 따뜻한 사랑 한 가득 예산군 오가면에서 사과 수확 참여

NH농협생명은 2014년 11월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사내 행복나눔 봉사단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행복나눔 봉사단은 제철을 맞은 사과 수확에 참여하며 마을의 일손을 도왔다. 농업인들의 구슬땀이 모여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수확하며 평소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맛있는 사과에 담긴 정성과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농업인들의 고충과 걱정을 전해들은 NH농협생명 김관영 전략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생명은 본사 및 총국 임직원들이 모두 행복나눔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농촌 일손 돕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30차례에 걸쳐 진행된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한 임직원이 290여 명에 달하며 총 봉사시간은 1970시간에 이른다. 이렇듯 나눔의 행복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농촌 일손 돕기에 NH농협생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농업인들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2013년 대표브랜드 '헤아림'을 공표했다. '헤아림'은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다. 특히 고객에 대한 '헤아림'의 의지를 확대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헤아림 봉사단'을 발족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도농상생을 위한 1사촌 활동, 축사 화재예방 캠페인,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등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NH농협손해보험의 노력이다.





**탐스러운 배처럼 영글어가는 행복
이천시 배 농가 일손 돕기**

배는 수확할 때까지 백 번 손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일 년 내내 줄서 있다.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 40여 명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2014년 6월에는 배 봉지 씌우기와 김매기 작업을 했다. 과일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은 유해 조류와 곤충의 피해를 막고 영양 공급을 도와 상품성 높은 과일 수확에 반드시 필요한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NH농협손해보험 봉사단원들은 배 하나하나에 정성스레 봉지를 씌웠다. 또 2014년 10월에는 배를 수확하고 수확 후 농지를 정리했다. 초여름 봉지 씌우기 작업을 잘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배가 탐스럽게 잘 영글어 수확의 기쁨이 두 배였다.



**농촌과 도시의 아름다운 동행
강화군 연촌마을과 1서촌 자매결연**

강화도 고려산 정상에서 인도 고승이 다섯 종류의 연꽃을 날려서 떨어진 곳이라 '연촌'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을 가진 마을. NH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5월 경기도 강화군 고천리 연촌마을과 1서촌 자매결연을 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도농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자매결연식이 있던 날 임직원 30여 명은 연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구마순을 심으며 구슬땀 속에 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매년 봄기를 두 차례 사무실 대신 연촌마을로 출근하고 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임직원들은 봄에는 주민들과 함께 고구마 순 심기, 모판 나르기 등의 작업을 하고, 가을에는 벼, 들깨, 콩, 고구마 등의 농작물 수확을 도왔다. 봄에 농작물을 파종했던 임직원들은 가을이 되어 직접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농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작업 후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농가의 애로사항 듣고, 향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연촌마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 2012년부터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소를 잃고 나서도 다음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쳐야하겠지만, 가능하면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치는 게 최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NH농협손해보험이 2012년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은 전기 점검을 통해 축사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 보험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2012년 5월부터 연말까지 1500농가를,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600농가를, 2014년 9월부터 연말까지 3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캠페인 과정에서 NH농협손해보험은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기가입한 가축재해보험의 계약 내용에 대한 컨설팅 및 농가별 특성에 적합한 특약 등에 대한 재설계 서비스도 병행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 등 16종의 가축 및 축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물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태풍 피해 응급 작업에 전사적 지원

2012년 늦어름 찾아온 불청객인 태풍 볼라벤과 덴빈 탓에 한 해 동안 정성으로 지은 농작물을 하루 아침에 잃은 농가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 임직원들은 태풍 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해 전사적으로 나섰다.

2012년 9월 임직원 50여 명은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소재 신흥농장을 비롯한 배 농장 3곳을 방문해 떨어진 배 수거 및 선별 작업에 온 힘을 쏟았다. 이후에도 임직원들이



교대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응급복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피해현황 조사에 담당 직원들이 밤낮없이 매달렸는데, 2012년 8월말까지 접수된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농지 수는 4만 200여 건, 1만 6079헥타르였다. NH농협손해보험은 피해농가들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전사적 총력을 다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든든해요
자연재해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사업 참여

최근 이상 기온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언제 불의의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다. 바로 보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2013년 11월 풍수해보험 사업을 약정 체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택이나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전국 4500여 개의 농·축협(지역농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NH농협손해보험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보험은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개인 부담 보험료는 1년 기준 3~15만 원으로 피해금액의 90%, 최대 9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경찰청과 함께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009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77%가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며 미숙한 운전도 원인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농기계의 도로운행은 날로 증가하는 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장치는 부족한 것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경찰청이 2012년 9월 농기계 사고율 감축을 위한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야광스티커와 안전삼각대를 전국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 및 농기계 운전자에게 공급하는 행사이다. 2012년에는 야광스티커 10만 장과 안전삼각대 2만 2000개를 공급했다.

2014년에는 3~5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4월에는 경기도 이천시 울면농협에서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가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농업인 100여 명의 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학현 대표이사는 "해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농기계 사고 예방 및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없이 나눠주는 나무가 되어 좋은 세상을 이루리라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증권

NH농협증권은 2014년 사회공헌브랜드 '이룸(irum)'을 선포했다. '이룸(irum)'은 '뜻한 대로 되게 하다'는 의미인 '이루다'의 명사형으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뜻을 함께 이루겠다'는 NH농협증권의 사회공헌 의지를 담고 있다. 한없이 나눠주는 나무처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NH농협증권은 고객과 이웃을 섬기고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이크테스트, 여기는 수동리 마을입니다!”
1사촌 마을 방송장비 지원 및 태풍 피해 복구**

NH농협증권은 2014년 7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마을에 방송 장비를 기증했다. 이는 1사촌 자매결연 마을인 수동리에서 공사로 인해 스피커 시스템을 비롯한 마을 방송장비가 유실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뤄졌다.

NH농협증권은 마을 방송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듣고 마을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소통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 마을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스피커 등 마을 방송 장비와 4km에 이르는 연결 케이블 공사를 지원했다.

NH농협증권 안병호 대표는 “1사촌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 방송장비를 기증하게 됐다”며 “수동리 마을 주민들 모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피해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수동리 마을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마을 곳곳을 함께 복구하며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참여한 임직원 모두 농사를 지으며 힘들었을 어르신들의 노고를 알기에 묵묵히 마을의 일손을 도왔다.

NH농협증권은 2014년 6월말부터 ‘1사촌 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기동하고 마을의 일손을 도우며 고향 어머니를 찾아뵙듯 따스한 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동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마을
1사촌 마을 벽화 그리기 및 환경 개선**

옛날 유난히도 가난해 배고픈 사람이 많았던 산골마을이라 붙여진 이름, 보릿고개마을. NH농협증권의 1사촌 자매마을인 이곳은, 이제는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은 아담하고 붓잡고 산과 맑고 깨끗한 계곡물을 벗 삼아 우리의 먹거리, 즐길 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 년 내내 찾는 농촌체험마을이 되었다. 이에 NH농협증권은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보릿고개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임직원 40여 명이 2014년 6월 경기도 양평 보릿고개마을을 찾아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펼쳤다. 체험장 진입로 벽면에 5가지 테마의 전래 동화 벽화를 그리고, 송어 체험장 바닥을 정비하고 화단 정리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NH농협증권 신탁팀 이예리 주임은 “대학 때 미술을 전공하고 붓을 놓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보릿고개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그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NH농협증권과 양평 보릿고개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1사촌 자매결연 후 매년 일손 돕기와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NH농협증권은 2014년 7월 NH농협선물 자매마을인 횡성 밤두독마을과 NH농협금융지주 자매마을인 흥천 왕대추마을을 방문해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달려가는 이웃사촌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CA 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A Joint Venture with Amundi

NH-CA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만큼 나눔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농협의 근간인 농촌을 위해 해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촌의 일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시대에기에 농번기나 자연재해 시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나 다른 자회사들과 공동으로 농촌 지원 활동도 자주 실시하고 있다.





쭉글쭉글 못 생겨도 맛과 영양은 최고!
충남 당진서 파리고추 수확 일손 돕기

파리고추는 충남 당진군이 전국 제일의 생산단지이다. 그 가운데서도 면천면은 파리고추의 원조 마을. 봄이 되면 겨우내 정성들여 가꾼 파리고추를 수확하느라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고소득 작물이지만 일손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NH-CA자산운용 임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서 파리고추 수확작업과 노지고추 지지목, 지지끈 설치 작업 등을 도왔다. 한편 2014년 4월에는 임직원들이 천안 성환농협 관내 과수 농가에서 배꽃 화접 작업 일손 돕기를 실시하기도 했다.



나눔이라면 언제나 일등인 농협인들!
범농협 차원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배꽃이 만개한 사나흘 동안은 배 농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수나무에서 꽃가루를 채취해 암나무의 꽃에 뿌려주는 화접 작업을 해야 한다. 벌과 나비 등 수분을 해주는 곤충이 줄어들어 사람의 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NH-CA자산운용 임직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경제지주 및 관련 자회사 임직원 80여 명은 2013년 4월 충남 아산시 음봉면과 둔포면 관내농가에서 배꽃 화접작업을 하며 영농철 일손을 도왔다.



아픔도 함께, 복구도 함께!
범농협 차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일손 돕기

2013년 여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내렸다. 중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농업인들은 애써 키운 작물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야만 했다.

NH-CA자산운용 등 NH농협금융 자회사 임직원과 NH농협금융지주, 농협중앙회 임직원까지 참여해 2013년 7월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금사농협 관내 침몰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참여한 직원 80여 명은 침수된 농작물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파손된 자재 철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복구 작업을 집중 지원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줄기 단비가 되어
횡성 밤두독마을 가뭄 피해 일손 돕기 실시

산 좋고 물 맑은 청정 마을인 밤두독마을은 예로부터 밤나무가 많아 그렇게 정감어린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비켜갈 수 없었다. NH-CA자산운용 등 NH농협금융의 자회사 임직원 40여 명은 2012년 6월 NH농협신물의 자매마을인 강원도 횡성 밤두독마을을 찾아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일손이 모자란 농가를 찾아 2톤의 감자 수확을 돕고, 그 가운데 800kg가량을 현장에서 구매하여 농가 경제 지원에 일조했다. 또 가뭄피해 해결을 위해 밤두독마을에 양수기 3대를 증정했다.

싱그러워라! 사과꽃 향기 같은 우리 사랑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캐피탈

NH농협캐피탈은 농촌이 발전하여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덕촌마을과 1사촌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NH농협금융 자회사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 짓는 사과 농사
1사촌 덕촌마을 일손 돕기**

사과나무 가득한 과수원은 참으로 아름답다. 달콤하고 풋풋한 사과꽃 향기 가득한 봄날부터 빨갭게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가을까지, 언제라도 그러하다. NH농협캐피탈의 1사촌 마을인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마을도 사과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마을이다. NH농협캐피탈 임직원들은 농번기마다 덕촌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NH농협캐피탈 임직원 30여 명이 덕촌마을을 찾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도와 사과꽃 따기, 열매숙기 등에 구슬땀을 흘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달고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한 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꽃들을 따주는 사과꽃 따기 작업이 필수이다.



**“우리아말로 진정한 이웃이지요!”
1사촌 마을주민 초청 간담회 개최**

2009년 1사촌 자매결연을 한 NH농협캐피탈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마을은 단양군내에서도 자매결연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마을이다.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NH농협캐피탈이 2013년 12월 덕촌마을 주민 30명을 본사에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간담회에서는 농협 사업 설명과 더불어 농산물 직거래와 일손 돕기 등 1사촌 교류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 자리에서 NH농협캐피탈은 2014년부터 본사 1층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 덕촌마을 특산물인 사과와 고추 등 농산물 판로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위로해요! 우수수 떨어진 열매만큼 아픈 마음
대형 태풍 피해 농가 일손 돕기**

2012년 8~9월은 한반도를 강타한 대형 태풍들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엄청났다. NH농협캐피탈 등 NH농협금융 자회사 임직원들은 2012년 9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석곡리 마을 농가 4곳을 찾아 태풍 피해 복구 지원활동을 벌였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고덕면 마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NH농협캐피탈, NH-CA자산운용, NH농협증권, NH농협선물 임직원 40여 명은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를 수거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 하는 등 농업인들을 도왔다.

또 4개사 임직원 4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9월 중순 찾아온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일대의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를 수확하고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 수거, 마을 환경 정비 등의 지원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강한 바람으로 떨어진 열매가 너무 많았다. 하루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지만 작은 도움이 전해져 넉넉한 한기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할 때 떠오르는 희망의 무지개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선물

글로벌 최강 선물회사인 NH농협선물은 농업인과 고객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자원에도 힘쓰고 있다. NH농협선물은 강원도 횡성 밤두둑마을과 1사촌 인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 환경 개선, 생산물 직거래 등 도농상생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른 자회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농촌에 굿은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달려가고 있다.





농부들 마음의 가뭄까지 해소되길!
1사촌 마을 가뭄 피해 일손 돕기 실시

바라고 바라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2012년 여름은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었다. NH농협선물을 비롯한 NH농협금융의 4개 자회사 임직원 40여 명은 2012년 6월 NH농협선물의 1사촌 마을인 강원도 횡성 밤두독마을을 찾아 가뭄 피해 복구 지원활동을 했다. 이번 지원은 기상 이변에 따른 가뭄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NH농협금융 자회사가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밤두독마을의 가뭄 극복을 위해 양수기 3대를 지원했으며, 더운 날씨에도 일손이 모자란 농가를 찾아 2톤의 감자 수확을 돕고, 그 가운데 800kg가량을 현장에서 구매하여 농가 경제 지원에 일조했다. 참가한 임직원들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에 와보니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가뭄 피해 소식보다 좀 더 심각해서 놀랐습니다.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고 죄송했지만, 작은 도움이 전해져 농업인들의 마음의 가뭄마저 해소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토실토실 밤 열매처럼 정이 익어가요
밤두독마을 농촌 지원 봉사활동 실시

NH농협선물의 1사촌 마을인 밤두독마을은 예로부터 밤나무가 많아 정겨운 이름이 붙은 곳이다. NH농협선물은 ‘1사촌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2013년 4월 강원도 횡성 밤두독마을에서 열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임직원 60여 명과 마을주민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결의 후 밤두독마을에 발전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밤나무 묘목 100그루와 뽕나무 묘목 20그루를 심고, 비닐하우스 14동에 30포대의 퇴비를 뿌리는 등의 농촌 지원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마을 특산물인 더덕장아찌 120kg을 직접 구매했다.



지붕에도 담장에도 무지개가 활짝 떴어요!
밤두독마을 벽화 그리기 및 환경 개선

365일 지지 않는 무지개가 밤두독마을에 활짝 떴다. 알록달록 무지개와 흰 구름이 담장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졌다.

NH농협선물과 NH농협증권 임직원들은 2014년 7월 강원도 횡성의 밤두독마을을 찾아 벽화 그리기 등 마을 환경 개선작업을 벌였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지만 임직원들은 담장과 지붕에 무지개 벽화를 그리고, 감자 캐기 등 일손 돕기와 꽃씨 뿌리기 봉사활동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벽화 덕에 마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멋진 벽화 덕분에 밤두독마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며 즐거워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14년 6월 NH농협증권 자매마을인 경기도 양평 보릿고개마을, 2014년 7월 NH농협금융지주 자매마을인 충청 왕대추마을 벽화 그리기에 이은 1사촌 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 일환이었다.

힘을 모으면 희망도 행복도 샘솟아요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은 기업으로서의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만이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소외된 이웃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농촌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는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농촌과 도시민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임직원 참여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情도 사과도 빨갭게 익어 가요 1사촌 소용마을과 주남리마을 일손 돕기

우리투자증권은 2005년 9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마을과 자매결연을 한 이후 사과 따기를 비롯한 일손 돕기와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지원하며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 왔다. 9년 동안 인연을 맺어 온 주남리마을 주민들과는 이제 '가족'처럼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으며 자주 활동한 임직원들은 '사과 농사꾼' 부럽지 않은 능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2011년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탄옹리 소용마을과 1사촌 인연을 맺었다. 주민 수가 40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마을인 소용마을의 자랑거리 역시 주남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사과다. 이후 임직원들은 매년 봄가를 두 차례 소용마을을 찾아 일손을 돕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임직원 30여 명이 2만 평 규모의 과수원에서 1만 여 그루의 사과나무 수확 작업을 하고, 반사필름과 유인추 제거 작업을 거들었다. 소용마을 이수원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맘때면 일손이 달리는데 우리투자증권 직원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 주민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매년 상당량의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등 자매결연 마을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사과 직거래를 통해 자매결연 마을은 농산물시장 경매비와 물류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은 도매가로 저렴하게 공급받음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농촌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어 보세요! 왕대추마을에서 3사 직원이 함께한 벽화 그리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큼지막이 피어있는 해바라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 싱싱한 에너지에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17명은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증권 직원들과 함께 2014년 7월 NH농협금융지주의 자매마을인 강원도 홍천의 왕대추마을을 찾았다. 왕대추마을에 영원히 지지 않는 해바라기를 선물하고 3사 간의 화합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3사의 직원들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왕대추마을 동면농협 건너편 농협 창고 전면에 20m×4m 크기의 '화합의 해바라기' 벽화를 그렸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함께 땀 흘리며 작품 하나를 완성하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동지애가 샘 솟는 것 같다."며 "왕대추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벽화를 보고 한 번씩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한 인연 덕에 농부의 넉넉한 마음을 배우다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이 충주시 동량면에 위치한 탄동마을과 자매결연 인연을 맺은 지 6년째, 이제 단
순히 일손을 돕는 차원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통로가 되었고, 점차 임직원 개개인이
탄동마을을 찾으면서 농촌 경험이 없는 임직원 자녀들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좋은 기
회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1사촌 활동이 임직원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자매마을에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 년에 두 번 반가운 만남 1서촌 탄동마을 농번기 일손 돕기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마중 나온 마을 어르신들의 충청도 사투리가 정겹다. 마치 명절날 손주들이 온 것처럼 반겨주신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08년 충북 충주시 탄동마을과 자매결연 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농번기 일손 돕기에 30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도 마을의 대표 작물인 사과를 수확하고, 제초 작업, 비닐 제거 작업, 고추 따기 등을 실시했다.

탄동마을 안대홍 이장은 “농업 기계화로 예전에 비해 농사일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들이 많아 농번기에는 젊은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아비바생명 직원들이 큰 힘이 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일손 돕기 외에도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과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 회관 보수공사, 마을 체육대회 후원, 맥타가트 도서관 도서 기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모두에게 따사롭고 풍요로운 햇살처럼

1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저축은행

2014년 6월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저축은행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서민금융을 실현하는 초우량 저축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행복도 남동배만큼 달고 큼지막하게!
인천서 배 농가 수확 일손 돕기**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서 생산되는 남동배는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12년 전국 탐프루트(최고 과일) 품질평가회'에서 남동배를 생산하는 농가가 대상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NH저축은행은 가을철을 맞아 남동배의 수확을 돕기 위해 나섰다. 임직원 12명이 2014년 10월 남동배 농가를 방문해 배를 따고 운반하는 등 일손 돕기를 실시한 것이다. NH저축은행은 앞으로도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서는 현재 30여 농가가 매년 1천 톤 정도의 남동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 가량은 타이완과 과테말라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베트남에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수출되고 남은 물량은 인천농협과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다.



**봉사도 화합도 해바라기처럼 정열적으로
3사가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실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노란 해바라기들이 마을 한가득 피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NH농협금융 3사 임직원이 함께 일하고 땀 흘리면서 농협금융 자회사 간 유대와 협동의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모였다.

NH저축은행, NH농협생명, 우리비바생명의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8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해바라기마을을 찾아, 해바라기 씨를 수확하고 줄기를 베어내는 등 일손을 도왔다. 해바라기마을 주민들은 "하필이면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작업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텐데도 다들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 수확량이 상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All together

더불어 같이



지역사회 · 복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도현의 시 '연탄 한 장'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 덩이 재가 되도록 뜨겁게 타오를 때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숙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쪽방촌 거주민 등 더불어 살아가야 할 많은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NH농협금융은 오늘도 뜨거운 연탄 한 장이 되고자 합니다. 해도 해도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든든한 한 끼 밥이 되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고,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 소외계층 복지증진, 지역사회 교류, 공익 실천 |



같이 있어 행복한 이름 이웃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금융지주

'같이 나아감'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NH농협금융지주는 수익 전액을 고객, 농업인,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대표 금융기관'답게 소외계층의 이웃을 향해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다. 농촌과 도시 곳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협동과 혁신을 기반으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가슴속에 하나 가득 꿈과 희망을!
류현진 선수와 꿈나무마을 어린이 방문

‘괴물’ 류현진 선수가 아이들 앞에 섰다. 희망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슈퍼 히어로를 눈앞에 두고 아이들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3년 12월 류현진 선수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찾았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운영하는 알로이시오 초등학교를 방문해 ‘류현진 선수와 함께하는 NH농협금융 연말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임직원과 류현진 선수는 아이들에게 후원품을 전달하고 함께 동지팍죽을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류현진 선수는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류 선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참석한 어린이 모두에게 사인볼을 선물했다.



사랑 듬뿍 김장김치 드세요!
자매마을과 사랑 나눔 김장

나눔은 함께할수록 더욱 커지는 법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도시의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김치를 자매마을 주민들과 함께 담그고, 함께 전달했다. 물론 마을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고추가 김장 재료였다.

NH농협금융지주는 자매마을인 강원도 홍천 왕대추마을 주민들과 2014년 11월 김장김치 1200포기를 함께 담가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300가구에 전달했다.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과 왕대추마을을 대표하는 직접 쪽방촌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선물하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이번 행사는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돕는 동시에,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도시의 소외계층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2013년에 이어 두 해째 진행되는 것으로, NH농협금융지주는 농촌 주민들과 함께 도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뜻 깊은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나라 지키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설 명절 맞아 군부대 위문 방문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가장 힘든 계절은 아무래도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겨울이다.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은 2014년 1월 육군 제28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도 최전방 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임직원은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위문금 및 세탁기를 비롯한 각종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부대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해 금융사기 예방법과 재테크 등을 알려주었다.

한편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에게 전달했다.



연탄을 통해 나누는 뜨거운 사랑 소외이웃에 연탄 3만 4000장 전달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다가도 따뜻한 집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폭 놓인다. 서민들의 겨울을 책임 지며 자기 한 몸 활활 태우는 연탄 덕분이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증권 등 7개 자회사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의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연탄을 선물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연탄 배달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NH농협금융은 3만 4000장의 연탄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기증했으며, 이 가운데 2800장의 연탄은 몸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등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배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연탄 한 장에도 많이 고마워하는 이웃들의 마음에 저희들이 더 미안하고 감사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해마다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도 남태령 전원마을을 찾아 2만 7000장의 연탄을 기증한 바 있다.

가슴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명절맞이 사랑 나눔 봉사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 가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선물꾸러미를 잔뜩 들고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하지만 명절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들은 2014년 2월 기사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서울역 인근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를 찾았다. 임직원들은 점심 배식봉사를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한 뒤 급식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또 무료급식소 인근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쌀과 간식을 전달하며 명절의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들은 2012년 9월 추석에는 사회 복지시설인 청운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말벗과 음식 수발을 해드렸으며, 생활실 등의 시설물도 꼼꼼히 청소했다. 또 TV, 세탁기, 쌀과 간식 등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서울후생원 아동들과 사랑 나눔**

추운 겨울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선물을 받고 돌아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의 웃음꽃을 보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 40여 명은 2013년 12월 구세군 서울후생원 아이들을 찾았다. 임직원의 손에는 100여 점의 방한용품과 100여 권의 수첩과 노트 등 선물이 한아름 들려있었다. 그 가운데 수첩과 노트는 서울후생원 방문 전에 임직원들이 직접 이면지를 이용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에코 수첩과 노트였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방임과 학대·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지도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아동생활 시설이다.

한편 이보다 앞선 2013년 5월 가정의 달에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이 구세군 서울후생원 아이들의 일일 가족이 되어, 서울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 다시 힘내세요!
농협가족 마음 모아 노숙인 쉼터 지원**

피곤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방에 누우면 잠이 솔솔 물려온다. 단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힘과 용기가 솟는 법이다.

NH농협금융은 사업구조개편 및 출범 1주년을 맞아 2013년 3월 서울시 종로구 교복동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를 후원했다. 이곳은 서울노숙자선교회를 설립해 지난 16년간 노숙인들에게 쉼터와 무료급식을 제공한 최성원 목사가 운영했는데, 후원금 부족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노숙인들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곳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제의에 따라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이 한 마음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동참했다.

이날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지주와 자회사들은 현금 5000만 원과 쌀 50포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통해 서울노숙자선교회에 지정기탁했다. 이와 함께 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희망봉사단에서는 일주일 간의 시간 동안 노숙인 쉼터의 노후화된 전기, 수도 시설 보수와 도배 등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로써 노숙인들이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되었다.



나눔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있는 곳이라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봉사단이 존재한다. '내 주변의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NH농협봉사단은 전국 157개 시군별로 조직되어 매년 2000여 회에 걸쳐 연인원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든든한 바탕이 되어 NH농협은행은 3년 연속 사회공헌활동 최고의 은행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세상 곳곳 행복을 가득가득 채울게요
소외 이웃과 사랑 나누는 NH행복채움회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난방용품품을 보내드렸고, 더운 여름 잘 나시라고 삼계탕을 대접했다. 추석에는 흥겨운 칠·팔순 잔치가 열렸다. 나눔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행복이 가득 채워졌다. NH행복채움회는 NH농협은행 중앙본부 부서 직원들이 2010년 4월 결성한 봉사단체로, 2014년 현재 7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행복 채움·희망 나눔·사랑 키움'을 기치로 삼고 있는 행복채움회는 농촌 및 지역사회의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소외이웃을 돕고 있다. 창단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39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해 2872명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지원금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인 행복채움회비를 포함해 총 1억여 원에 이른다. NH행복채움회는 농촌 일손 돕기, 도서지역 희망도서 보내기, 독거 어르신 쌀·김치·떡국·삼계탕·선물꾸러미·난방비 전달, 독거 어르신 어버이날 행사 및 칠팔순 잔치 지원, 무료급식 봉사, 저소득학생 지원, 아동복지시설 후원,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생활용품 지원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 나눔을 실천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서울후생원에서 100인분 저녁 봉사활동

정(情) 중에 함께 밥 먹으며 드는 '밥정'이 있다.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으며 사랑을 듬뿍 느끼라고 NH농협카드봉사단이 팔을 걷어붙였다.

2014년 7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찾은 NH농협카드봉사단원 20여 명과 NH농협카드 신용환 사장은 식재료 구입부터 식사준비, 배식까지 모두 도맡아 하며 100인분에 달하는 저녁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서울후생원은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해주는 민간복지단체이다. NH농협카드봉사단은 이날 방문을 계기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를 정례화 하여 이어나가고 있다. NH농협카드봉사단은 '나누는 기쁨, 행복한 동행'을 기치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만든 봉사활동 동아리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울산 만들기
울산농협 봉사단 행복나눔인 상 수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350여 명의 든든한 봉사단원이 있다. NH울산농협 사랑나눔봉사단은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나눔실천 운동을 펼친 공로로 2014년 6월 제2회 행복나눔인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로부터 '행복나눔인 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3년 3월 출범한 사랑나눔봉사단에는 NH울산농협 임직원들이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농번기 일손 돕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사랑의 집 고치기, 태연재활원 봉사활동, 사랑나눔 헌혈, 도서 나누기, 사랑나눔 김장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날한시 방방곡곡 퍼진 사랑의 향기 NH농협카드 전국 10곳 동시다발 봉사활동

2014년 3월 12일은 전국에 NH농협은행의 사랑이 골고루 퍼져나간 날이다. NH농협 임직원과 전국의 카드 모집인 등 500여 명이 전국 1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동시다발적인 봉사활동을 벌인 것이다. NH농협카드 임직원과 서울 지역 카드 모집인 등 10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농협 쌀 2000kg(20kg 100포)와 농협 홍삼액 2000포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전국의 NH농협카드 영업소 소속 직원들과 카드 모집인 400여 명도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장애인복지관, 대전 사회종합복지관 등 영업소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쌀을 전달하고, 청소와 급식 봉사, 어르신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공익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공익기금 등을 바탕으로 소외 이웃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정례화 하고 있다.



맛있는 김치는 밥상의 필수품 소외계층에 김장김치와 쌀 나눔

한국 사람의 밥상에 김치가 빠진 건 상상하기 힘들다. 맛있는 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은 그냥 똑딱 없어진다.

NH농협은행은 2013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제10회 김장김치·쌀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및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했다. NH농협카드봉사단 50여 명과 자원봉사자 350여 명, NH농협은행장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서초구청장, 텔런트 양미경 씨 등 참석자 모두가 함께 김장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날 직접 담근 김장 김치와 쌀을 서울 관내 독거 어르신 및 소외계층 등 총 2200가정에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은 NH농협카드의 공익상품인 '한마음통합카드' 사용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기금 5000만 원을 이날 행사를 위해 후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012년에도 '제9회 사랑의 김장·쌀 나눔행사'에 쌀 1004포(20kg, 5000만 원 상당)와 배추 15톤(3000만 원 상당)을 기부하고 김장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자원봉사 및 현충원 환경 정화

2014년 4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빠졌다.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임직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직접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했다. 낯 놓고 슬퍼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며 구조작업에 힘이 되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두 달여 동안 진도군 지부 임직원 99명이 210시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임직원 160여 명은 2014년 4월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 이날은 당초 임직원 춘계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체육행사가 부적





절하다는 데 노사가 뜻을 같이하고 대신 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숙한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임직원들은 현충탑에서 헌화와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의 묵념시간을 가졌으며 비석을 닦고 묘역 주변을 정리하는 등 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다. 봉사 활동 내내 임직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범농협 대학생 홍보대사인 NH 영 서포터즈 학생들이 함께했다.

**금수강산 길이길이 보전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익기금 전달**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 그 핵심을 오롯이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국립공원이다. NH농협은행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국립공원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예금 판매액의 0.1%를 국립공원 관리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공익상품인 '채움 자연과 더불어 예금'을 2011년부터 판매해, 2013년까지 총 2억 38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2014년 3월에는 예금을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 6700만 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달했으며, 이 공익기금은 자연 나누리 사업 등 국립공원 홍보와 국립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공원 시설의 설치 관리사업 등에 쓰였다.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홍보를 통해 기금 적립액을 확대해 나가고,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그린포인트제도 활성화 등 공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토요일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해요
500명이 활동하는 성남사랑농협봉사단**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임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성남사랑농협봉사단'은 농협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다. 2005년 발족한 이 봉사단은 성남지역의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500여 명의 임직원이 결성한 단체로, 매년 84회 이상 연인원 15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남사랑농협봉사단은 12개 반으로 편성돼 매주 토요일 성남시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병원, 경로당, 독거 어르신 자택 등을 방문하여 목욕, 청소, 산책, 놀이, 말벗 되어 드리기, 시설개보수 등 생활 밀착형 봉사를 통해 아프고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경기도지사표창, 성남시장표창,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표창, 성남시자원봉사 경진대회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농협인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코스모스 산들산들 가을나들이 떠나요
부산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가을여행 후원**

선선한 바람, 들뜬 가득한 코스모스,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억새, 가을은 역시 나들이의 계절이다. NH농협은행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지점은 2011년부터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의 '마음으로 물드는 가



을여행'을 후원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100명과 함께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로 떠난 가을여행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2014년 9월에는 경주 동궁원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을 후원했다.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소중한 후원금 덕분에 나들이에 참가한 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동궁원에서 다양한 식물을 관람하고 새들을 직접 체험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잠들지 못하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4.3평화공원 무연고 묘역정비 봉사활동 실시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제주도에서는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제주4.3사건이다. NH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은 제주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4년 4월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무연고 묘역정비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은 지난 8년간 매주 금요일 지점 주변 길거리 청소를 비롯하여 노인 요양원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충혼묘지 묘역정비 활동을 계획하는 등 매월 1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법적 소외계층 위한 법사랑기금 조성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법 앞에서도 소외계층이 되기 일쑤다. 이에 법무부와 농협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14년 4월 법무부와 농협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NH농협은행에서 법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인 '법사랑 플러스 통장'이 출시된 것이다. 법사랑 플러스 통장·예금·적금은 2018년까지 예금 판매액의 0.1%, 1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사랑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어린이 범죄 피해자 지원, 기타 기초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된다. 여기서 마련된 기금으로는 솔로몬로파크, 지자체와 연계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공연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로스쿨 운영, 다문화 생활법률 특강, 교재 개발·보급 등 법 교육 강화사업,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등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 4월 예금 잔액의 0.1%를 법사랑기금으로 조성하는 법사랑 통장을 출시한 이래 2013년 6월까지 11억 96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에 기금을 사용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법무부에 법사랑기금 2억 51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법사랑기금 외에도 다양한 공익기금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 통장'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독도 사랑기금 등에, 'NH희망채움 통장'과 '채움 같이'의 가치 예·적금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두바퀴 행복채움 통장'은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통한 환경보호에, '채움 다함께 미래로 예금'과 '더 나은미래 통장'은 농촌 환경개선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수세계박람회 후원 및 자원봉사

2012년 5월 남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서는 세계적인 행사,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렸다. 세계박람회는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이에 NH농협은행은 박람회 유치 시기부터 후원금 지원과 공익상품 발매를 통한 기금 마련을 약속하고, 여수시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유일의 순수 민족은행으로서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3월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후원금 5억 원과 박람회장 내 스카이다워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인 머그컵 50만 개를 전달했다. 또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의 NH농협금융 점포와 농축산물 판매장을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여수시 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에도 앞장섰다.

한편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 등 여수농협지역본부 임직원 63명은 박람회 기간 주말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입장 안내와 대변인실 도우미 활동, 공항과 엑스포역 안내, 관람객 질서 유지 활동을 벌였다. 자원봉사 활동을 한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 이치현 계장은 “처음에는 물려드는 인파와 각각각색의 관람객 요구에 겁도 나고 힘들어 온 적도 있었지만 저의 작은 노력이 박람회 성공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의 젓줄, 우리가 지킨다 울산 태화강 주변 환경미화 봉사

울산의 중심을 가르며 흐르다가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태화강은 울산의 젓줄이다.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등 울산농협지역본부 임직원 130여 명은 2012년 3월 울산시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 강변 일대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을 기원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펼친 사회공헌활동이었다. 한편 2012년 9월에는 울산농협 농촌사랑봉사단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회원 50여 명이 모여 태풍 산바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태화강의 환경 피해를 복구하고자 태화강 주변의 쓰레기를 청소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로 집계된 쓰레기는 무려 2톤에 이르렀다.



나눔으로 더해지는 행복 그리고 사랑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라는 비전의 실천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2014년에는 상생과 화합을 위한 나눔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나눔봉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갓 구운 빵의 온기처럼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노숙인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갓 구워낸 빵의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내음은 언제라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201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빵 봉사단체인 '빵 만드는 사람들(빵만사)' 자원봉사 회원들과 함께 단팥빵과 식빵을 만들어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운영하는 서울역 노숙인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 전달한 것이다. 빵만사는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 지역아동센터,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빵을 만들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NH농협생명 김근호 경영혁신부장은 "빵을 만들면서 나눔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빵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봉사활동의 소회를 전했다.



**함박눈 맞으며 연탄도 사랑도 날라요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

오늘은 추위에 떨다가도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와 언 몸을 녹이다 보면 세상살이 시름도 어느덧 잊혀져가기 마련이다.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2012년 12월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 마을을 찾아 총 1만 장의 연탄을 기부했는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의 저소득 가구에는 임직원 60여 명이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선임계리사 실 박창준 계장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갑자기 함박눈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선배,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며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여름 농촌 의료지원 봉사에 이어 회사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라며 봉사활동의 기쁨을 전했다.



**착한 보험사 만들기, 신입사원이 앞장선다!
신입사원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봉사 활동**

NH농협생명은 농협의 '동행'과 생명보험업의 '나눔'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한 '착한 보험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NH농협생명의 신입사원 역시 사랑과 나눔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NH농협생명은 신입사원 31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년 1월 지체 장애인 거주시설 명주원을 찾았다. 신입사원들은 장애인들과 블록 쌓기, 책 읽기, 퍼즐 맞추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생활관 청소와 식사를 도우며 하루 동안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학중 신입사원은 "취업 준비에 바빠 소외이웃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엔 동료들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착한 보험사의 일원으로 임직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맛있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려무나! 결식아동 위한 사랑의 햄 나눔 실시

방학이 오하려 싫은 아이들이 있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끼니를 때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NH농협생명이 결식아동들을 위해 나섰다. 2013년 7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협 목우촌 독심 등 4개 햄 제품 900개를 홍제동 결식아동 어린이 500여 명에게 지원한 것이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큼 가슴아픈 일은 없기에 작은 사랑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NH농협생명 오성근 경영지원본부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굶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도에서 절절히 외치는 “독도는 우리 땅” 독도사랑 기금 전달 및 독도수호결의대회 개최

NH농협생명 임직원 150여 명이 독도 땅을 밟았다. 기업 직원들이 단체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을 하는 시점에 NH농협생명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4월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독도사랑 기금 전달식을 열고 독도사랑운동본부에 15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후 사동항에서 출항한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독도에서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열고 독도의 역사와 소유권을 바르게 알리고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인 의식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같은 날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유소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복도 사랑도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전 임직원 참여하는 ‘행복나눔 봉사단’ 발족

2012년 봄, 민간보험사로 출범한 이후 조직과 업무 안정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힘쓴 NH농협생명은 출범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행복이라는 이름의 도약을 다시금 준비했다. 2013년 10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인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한 것이다.

봉사단의 단장을 맡은 NH농협생명 나동민 대표이사는 발족식에서 “앞으로 농촌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은 보험사 출범 전부터 7년 이상 추진해 온 농촌소회 무료진료를 비롯해 농촌 재해 복구, 사랑의 빵 만들기, 농촌과 소외이웃을 위한 금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위해 2013년 3월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전년 대비 사회공헌활동 투자금액을 15% 이상 증액했다.



**빨간 김치만큼 화끈한 사랑 드려요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가정에 김장 나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은 푹딱 해치울 수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NH농협생명 행복나눔 봉사단이 나섰다. 봉사단 50여 명은 우양재단 직원들과 함께 2013년 12월 서울시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운동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2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이 김장김치는 서대문구, 강서구 지역의 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 200가구에 따뜻한 선물로 전달되었다.



**무한한 가능성 지닌 청춘이여, 힘내라!
청년 구직자 위한 면접용 의류 기증**

NH농협생명은 훌륭한 인재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영리단체 '열린옷장'과 함께 '힘내라 청춘' 캠페인을 진행했다. '힘내라 청춘' 캠페인은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등의 의류를 모아 청년 구직자와 사회 초년생 등 값비싼 정장 의류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2014년 6월 2주간 NH농협생명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정장 세트 60여 벌, 스커트·바지·와이셔츠·재킷 190여 벌, 구두와 소품 150여 개가 모였으며, 일부 기증자들은 '힘내라 청춘' 카드를 작성해 청년 구직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힘내라 청춘' 캠페인은 단순히 면접용 의류 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증자와 대여자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해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증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를 위해
저소득 가구에 돼지고기 500세트 전달**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홍제동 개미마을. 한가위를 앞두고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이 개미마을의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9월 추석을 맞아 개미마을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돼지고기 세트 500개를 기증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직접 배송하며 한가위 덕담을 나눴다. 이처럼 NH농협생명은 단순한 기부 활동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직접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음까지 다독이는 아름다운 헤아림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속삭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 그 헤아림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마음을 보듬고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먹는 정겨운 나눔이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신입직원 시절부터 만든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 지속적으로 추억을 쌓아가는 NH농협손해보험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릇그릇 따뜻한 사랑을 담아 '나눔의 동지' 후원 및 무료 급식 봉사

날씨가 추워질수록 나눔의 온도는 더 높아져야 한다. 나누는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의 손길도 겨울이 되면 더 바빠진다.

NH농협손해보험은 2012년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의 무료급식소 '나눔의 동지'를 정기 후원하고, 때때로 직접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연말을 맞아 임직원 30여 명이 나눔의 동지를 찾아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 200여 명에게 손수 준비한 점심을 제공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에는 청소를 하고 간식을 나누며 사랑의 손길을 펼쳤다. 또 두 달 후인 2013년 2월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임직원들이 손수 마련한 떡국 점심을 제공하고 떡국용 떡을 선물로 증정했으며, 2014년 2월 정월대보름 즈음에는 손수 지은 오곡밥과 나물 반찬을 독거 어르신들과 나눴다.

농협손해보험은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 따뜻하고 즐거운 정을 나누듯, 손주처럼 반가운 손길로 나누어주는 어르신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사회 첫걸음은 봉사활동으로! 신입사원 양로원에서 봉사활동

NH농협손해보험의 신입사원들은 입사 후 첫 업무를 사무실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나눔경영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자리가 그들의 첫 업무지다.

NH농협손해보험 신입사원 32명은 2013년 7월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생활실 청소, 환기구 청소, 화단 정리는 물론 주방 업무 보조 등 양로원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으며, 봉사 활동 후에는 양로원의 어르신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출범 이후 신입사원들의 입문 교육 시마다 봉사활동을 실시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헤아림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희망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LPGA 최나연 선수와 평택에서 자선행사 전개

실력만큼이나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예쁜 그녀, 최나연. NH농협손해보험이 세계적인 여자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와 함께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섰다. 2013년 12월 NH농협손해보험과 최나연 선수는 평택시 소재 성육보육원에 컴퓨터실을 새롭게 마련해주고, 보육원 어린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후 경기도 평택시청에서 열린 조손가정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평택 지역 내 조손가정 어린이 25명을 1년간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를 전달했다. 전달식 후에는 평택시청 내 구내식당에서 최나연 선수 팬클럽 및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전해줄 김장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한 최나연 선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열심히 하다 보면 한 해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선행사를 통해 팬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는 법은 달라도 모두모두 행복하기를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증권

NH농협증권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아프지 않는 것, 너무나 기본적인 행복의 필요충분조건들이다. NH농협증권 임직원들은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 사회 누구에게나 충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쓰고 있다. 헌혈 캠페인, 연탄 나눔, 김장 나눔 등 NH농협증권의 행복채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참으로 멋진 사랑의 행동
자회사 공동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나눔이다. 나의 작은 것을 나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사랑의 행동인 것이다.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CA자산운용, NH농협선물 등 여의도에 위치한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헌혈증서를 모아 혈액을 필요로 하는 협회에 기부해오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6년째 헌혈행사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2014년 3월에도 NH농협증권을 비롯한 NH농협금융 자회사 임직원들은 NH농협증권 대강당에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헌혈을 하고 현장에서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헌혈에 참여한 NH농협증권 김성중 사원은 “농협금융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지인들에게도 헌혈의 필요성을 알려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얼어붙은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외계층 이웃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살을 에는 추위를 사르르 녹이는 연탄처럼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힘겨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며 NH농협금융 임직원들이 모였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증권 등 7개 자회사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연탄 기증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3만 4000장의 연탄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기증했다.

NH농협증권 등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겨울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2만 장의 연탄을, 2013년 10월에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2만 7000장의 연탄을 기증한 바 있다.



영양만점 김치로 나누는 사랑
소외이웃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실시

다른 반찬이 없어도 김치 하나면 밥 한 공기 딱 해치울 수 있다. 게다가 김치는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 뽑힐 정도의 영양가까지 갖추었다. 그러나 김장 나눔은 영양만점, 사랑만점 봉사활동이라 할 만하다.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은 2012년 12월 농협재단빌딩 9층 NH농협증권 강당에서 ‘김장나눔 사랑채움 행복가득’ 행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50여 명은 직접 김장을 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2000Kg를 기증했으며, 전달된 김치는 저소득 가정 등의 소외이웃들에게 나눠졌다. 참가자들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추운 겨울에 저희들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합니다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CA 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A Joint Venture with Amundi

NH-CA자산운용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소득 가정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었고, 어린이 복지시설에 보낼 김치를 담갔으며, 생명을 나누는 헌혈을 했다. 이 모든 활동에 NH-CA자산운용 임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이 듬뿍 들어갔다. NH-CA자산운용은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신을 불사르는 연탄에게 사랑을 배우다 소외계층 이웃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연탄은 자신을 불태우며 주위를 따뜻하게 만든다. 각박한 시대, 그런 연탄의 사랑법이 그림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CA자산운용 등 7개 자회사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연탄 기증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3만 4000장의 연탄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기증했으며, 이 가운데 2800장의 연탄은 몸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등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배달했다.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겨울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0월에도 남태령 전원마을을 찾아 2만 7000장의 연탄을 기증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NH-CA자산운용은 6750장을 기증했다.



따뜻한 사랑으로 버무린 맛있는 김치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사랑의 김치 페어 개최

위생모에 앞치마, 마스크에 고무장갑까지 김치를 담글 만한 준비가 갖춰졌다.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인 김순자 장인의 비법 설명에 따라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차츰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에 자신감이 붙어갔다. NH-CA자산운용 임직원들은 2012년 11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사랑의 김치 페어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37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400여 명이 힘을 모아 1만 4000kg의 김치를 담갔으며, 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속 복지시설 50여 곳과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됐다.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2011년 시작한 사랑의 김치 페어는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랑 나눔 행사이다.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실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나눌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일 것이다. 그만큼 헌혈은 참으로 고귀한 나눔의 행동이다.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2014년 3월 NH농협증권 대강당에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본 행사에는 NH-CA자산운용 등 NH농협금융 자회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가해 이웃 사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협금융자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헌혈증서를 모아 혈액을 필요로 하는 협회에 기부해오고 있다.

서로 보살피고 서로 아껴주며 서로 사랑하기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캐피탈

NH농협캐피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겨울이면 김장과 연탄 나눔에 나서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잊지 않고 무료급식소를 찾아 사랑을 나누고 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NH농협캐피탈은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매달 두 번째 수요일엔 영등포로!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및 시설 정비

NH농협캐피탈 직원들이 매달 두 번째 수요일이면 잊지 않고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이다.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에는 매일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 400여 명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다.

NH농협캐피탈이 토마스의 집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4년 3월 임직원 20여 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면서부터였다. 이날 임직원들은 쌀 500kg과 사과 500개를 토마스의 집에 전달하고, 배식봉사와 설거지, 청소 등 일손을 도왔다. 이후 2014년 8월에는 토마스의 집 시설 정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NH농협캐피탈 임직원들은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토마스의 집 나무 바닥을 타일로 교체하고, 낙후된 주방 환기시설 교체 및 추가 증설 작업 등을 진행했다.



사랑 양념으로 담긴 특급 김치
소외이웃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실시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김치 냄새가 강당에 가득하다. 앞치마에 요리사 모자를 쓴 직원들은 서로 담긴 김치를 먹여주며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NH농협캐피탈, NH농협증권, NH농협선물은 2012년 12월 농협재단빌딩 9층 NH농협증권 강당에서 '김장나눔 사랑채움 행복가득' 행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50여 명은 직접 김장을 하여 서울사자원봉사센터에 2000kg를 기증했으며, 전달된 김치는 저소득 가정 등의 소외이웃들에게 나눠졌다. 참가자들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추운 겨울에 저희들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연탄처럼 뜨거운 사람이 되길!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다 보니 얼굴에도 옷에도 여기저기 검댕이가 묻고, 추운 날씨에도 어느새 땀이 줄줄 흐른다. 하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캐피탈 등 7개 자회사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연탄 기증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3만 4000장의 연탄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기증했으며, 이 가운데 2800장의 연탄은 몸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등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배달했다. 참가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였지만 비어있는 연탄 창고가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온기로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H농협캐피탈 등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겨울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2만 장의 연탄을, 2013년 10월에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2만 7000장의 연탄을 기증한 바 있다.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 좋은 길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선물

NH농협선물은 혼자 가는 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손잡고 속도를 맞추어 함께 걸어갈 때 참으로 걸어가기 좋은 길이 된다. 그 길 위에 행복과 사랑, 웃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NH농협선물이 생명을 나누는 헌혈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와 연탄을 나누고, 책이 부족한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 나눌 때만이 행복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NH농협선물은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 나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강당에 침대가 여럿 설치되고 직원들이 차례를 기다려 눕는다. 바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실천, 헌혈을 하기 위해서다. NH농협선물을 비롯한 7개 NH농협금융 자회사 임직원들은 2014년 3월 NH농협증권 대강당에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헌혈을 하고 현장에서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이지만 NH농협금융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쓱쓱쓱 맛있게 사랑을 버무려요
'김장나눔 사랑채움 행복가득' 행사 실시

서로 앞치마를 매주고 요리사 모자도 어색하지만 썬본다. 빨간 속을 절인 배추에 쓱쓱쓱 맛있게 바르니 어느새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다. 담근 김치를 서로 먹여주며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NH농협선물, NH농협캐피탈, NH농협증권은 2012년 12월 농협재단빌딩 9층 NH농협증권 강당에서 '김장나눔 사랑채움 행복가득' 행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50여 명은 직접 김장을 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2000kg를 기증했으며, 전달된 김치는 저소득 가정 등의 소외이웃들에게 나눠졌다.



사랑 온도도, 방바닥 온도도 뜨끈뜨끈!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좁은 골목이다 보니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다. 추운 날씨지만 어느새 땀이 줄줄 흐른다. 그래도 다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선물 등 7개 자회사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촌을 찾아 연탄 기증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NH농협금융 자회사들은 3만 4000장의 연탄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기증했으며, 이 가운데 2800장의 연탄은 몸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등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배달했다.

하늘처럼 큰 꿈을, 바다처럼 큰 희망을!
부계지역아동센터에 도서 기증

상대적으로 독서와 학습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NH농협선물과 NH농협캐피탈이 나섰다. 임직원들이 기증한 도서 150여 권을 2012년 8월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위치한 부계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할 것이다. NH농협선물 임직원들은 학습과 독서를 위한 도서

보유량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를 기증했다. NH농협선물 임직원들이 123권, NH농협캐피탈 임직원들이 33권을 기증했다.



희망나무에 사랑과 행복 열매가 주렁주렁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은 어려운 환경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내 봉사단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자발적 기부금 모금제도인 우리천사펀드 제도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국내외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빵으로 사랑을 전하는 희망 파티쉐들 방학 맞이 자녀와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나눔

얼굴에 밀가루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모두들 빵 만들기에 열심이다. 어느새 고소한 빵 냄새에 군침이 꿀꺽 넘어간다.

우리투자증권은 방학을 맞아 임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 2월 대한적십자사 중랑·노원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일일 '희망 파티쉐'가 되어 직접 빵을 만들어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의 제빵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직원 및 가족 32명, 총 10가정이 참여했으며,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호응도가 높았다. 이날 소요된 비용은 전액 우리천사펀드2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이날 참가한 어린이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 빵을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뻛요, 그리고 빵 만드는 게 정말 재밌어요, 다음 방학 때도 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미아 걱정 없이 봄꽃 즐기세요 여의도 봄꽃축제 미아 방지 캠페인 실시

매년 따뜻한 봄기운이 살포시 느껴질 때면 여의도에서는 왕벚나무를 필두로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봄꽃이 만개해 넓게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때 펼쳐지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우리투자증권은 2014년 4월 '제10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동안 미아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우리투자증권이 2012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혼잡한 축제 기간 일어날 수 있는 미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아방지용 팔찌를 제작해 배포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미아방지용 팔찌 2000개와 풍선 1만 개를 제작했으며, 소요비용은 전액 우리천사펀드2 기부금을 사용했다. 미아방지용 팔찌는 특수고무로 제작돼 잘 끊어지지 않고 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미아방지용 팔찌 및 풍선 배포에 참여한 고객지원부 우리나눔츠 봉사단원들은 "매년 축제기간에 귀여운 옥토 캐릭터가 그려진 팔찌를 받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후원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있었다. 온 국민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우리투자증권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1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 전달은 1961년 NGO로 설립돼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구호금 지급 권한을 인정받은 법정 구호단체인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하여 투명성을 더했다. 한편, 이번 후원금 모금은 레이디스챔피언십 프로그래밍대회 예산과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되었다.



쪽방촌 어르신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 영등포 쪽방촌에서 삼계탕 나눔 봉사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집들과 비좁은 골목.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은 도시 최빈곤층이 모여 사는 곳이다. 문을 닫아놓으면 찜통 속에 있는 것처럼 덥지만 범칙 위험 때문에 문 열기조차 쉽지가 않다. 쪽방촌 방에 거주하는 노숙인들과 어르신들은 바람 한 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선풍기 하나 놓지 못한 채 한여름을 지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임직원 50여 명은 2014년 7월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과 자활을 위해 노력 중인 노숙인 등 총 600여 명에게 초복을 맞이하여 삼계탕을 대접했다.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쪽방촌 세대를 방문하여 삼계탕을 직접 전달하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배식을 했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여름 영등포 쪽방촌과 인연을 맺으며 매년 꼭 찾아뵙겠다고 어르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뤄졌다. 우리투자증권은 2013년 8월에도 복날을 맞아 영등포 쪽방촌에 삼계탕 600인분을 후원한 바 있다.



한겨울 마음만은 늘 따뜻하길 영등포 쪽방촌에서 연탄 나눔 활동

힘들게 추운 겨울을 나아 하는 영등포 쪽방촌에 우리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따뜻한 한 줌 온기를 품은 연탄과 김치를 안겨주기 위해 이들과 만났다.

우리투자증권은 2014년 12월에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쪽방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임직원 40여 명은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150여 가구에 연탄 5000장과 김치 2000포기, 라면 100박스, 쌀 105포를 배달했고, NH농협금융 전 자회사가 함께 만든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333박스도 함께 전달했다.

우리투자증권은 2013년에 영등포 쪽방촌과 인연을 맺은 이래, 한 해 두 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같은 해 12월에 연탄 5000장과 김치 2000포기를 후원했다.

**등근 보름달처럼 한가득 정을 담아
추석맞이 사랑의 도시락 세트 전달**

곰탕, 죽, 참치, 맛밤, 참기름 등 13가지 물품들이 따뜻한 정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선물세트'에 담겼다. 우리투자증권은 2014년 8월 추석을 맞아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국내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 선물세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비용은 우리천사펀드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우리투자증권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과 월드비전 10명, 월드비전 김보성 홍보대사 등이 참여해 제작한 선물세트는 전국 11개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장을 통해 총 2000가정에 전달되었다. 우리투자증권은 2005년부터 임직원이 매달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우리천사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2억여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월드비전과 함께 일대일 아동결연, 국내아동 긴급구호, 사랑의 도시락 후원 등의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다른 이름 나눔이 세상을 밝힙니다

2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 차원을 넘어 기업이 반드시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하나의 경영활동인 것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임직원의 봉사활동이 중심이 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기부가 아닌 사회적 혁신을 이뤄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해 실제 소외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꿈과 희망을 맛있게 요리해요!
두 해 걸쳐 전국장애인요리경연대회 후원

요리사 모자에 앞치마, 칼질하는 모습까지 어엿한 셰프다. 몇 주 동안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를 보여주는 자리인지라 참가자들의 얼굴이 무척이나 진지하다. 우리아비바생명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요리경연대회를 2012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후원했다. 요리에 관심이 있는 전국 장애인 복지관 및 시설의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이 참가하는 이 요리대회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요리를 주제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사생활 능력과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우 인기가 있는 대회라 해마다 4월이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장애인 관계 기관들이 독특한 레시피들을 선보이며 앞 다투어 참가 요청을 한다. 2013년 닭을 주제로 열린 대회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2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100분 동안 각각각색의 풍성한 요리들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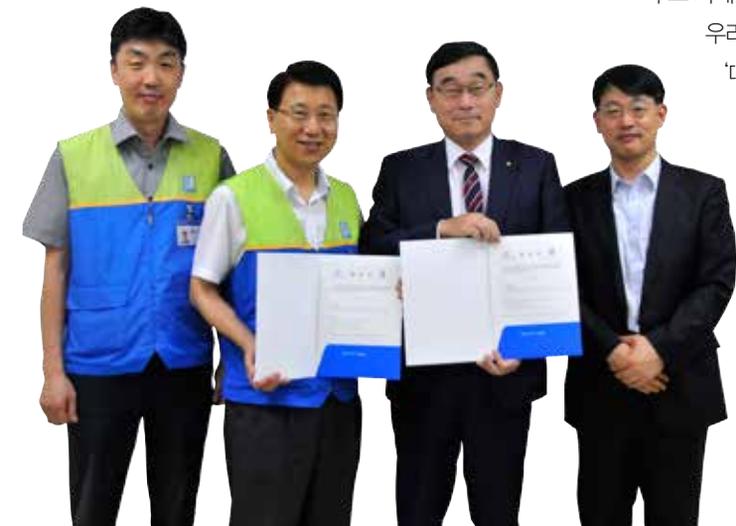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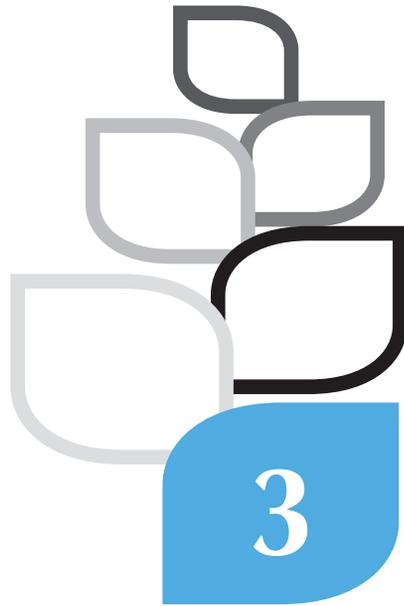
일자리를 만드는 멋진 나눔
장애인 재활시설에 임직원 재활용 물품 기증

동화책, 의류, 장난감 등 120여 점을 기증한 우리아비바생명 직원은 “아이들이 금방 커버리니까 옷 이트 신발이든 금방 못 입게 되죠. 이제 여섯 살이 된 개구쟁이 아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해 주고 싶어 아이와 함께 물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7월 장애인들의 자립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GoodWill Store)와 임직원들의 재활용 물품 기증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주간의 캠페인을 통해 의류, 가전, 도서, 잡화 등 총 1522점의 기증품을 모았다. 이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들의 직업기술 훈련 및 자립을 위한 나눔 사업에 사용되었다. 굿윌스토어는 전 세계 28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비영리단체로, 여러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후원과 기증을 받아 지원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시 소속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다.

넉넉한 한가위에 송편은 필수!
추석 맞아 노숙인 급식소 송편 나눔 실시

추석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음식이 송편이다. 가족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장면은 행복 그 자체다. 하지만 추석 명절이 되어도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이들이 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추석명절을 앞둔 2013년 9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노숙인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를 찾아 무의탁 어르신 및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 봉사과 송편 나눔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30여 명은 급식소를 찾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500인 분의 송편을 전달했다. 더불어 서울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도 후원했는데, 이 후원금은 따스한 채움터의 ‘나눔미은행’ 지원사업에 사용되었다.





For the future

미래로 같이



교육 · 스포츠 육성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다른 이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내가 먼저 얻은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어 갖는 것/ ……/ 나는 나눌 것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그리고 보니 나눌 것이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나누면서 제가 더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고/ 자꾸만 자꾸만 나눌 것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보듬고 가르쳤던故 이태석 신부가 나눔에 대해 쓴 시의 구절들입니다. NH농협금융의 나눔 정신도 이와 닮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꿈꾸고 밝게 웃으며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에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행복채움금융 전도사’가 되어 농촌의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찾아가고, 책과 장학금을 지원하며 테니스와 정구를 가르쳤던 것도 더불어 나누며 이 땅 가득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 금융 교육, 학업관련 지원, 스포츠 꿈나무 육성 등 |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농촌 지역 특성화고에서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을 열고 있다. 임직원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앞으로도 꿈나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너의 꿈을 응원할게! 특성화고에서 '꿈나무 행복채움교실' 개최

“강연을 듣고 난 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안 좋은 상황이 닥쳐와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곡고등학교 1학년 노혜정 학생의 소감이다.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들은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특성화고인 전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농협금융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을 열었다. 이날 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행복채움교실은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의 '꿈과 도전정신' 특강, 농협은행 테니스 선수단이 주니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한 테니스 꿈나무교실과 행복채움 금융교실로 진행되었다.

임종룡 회장은 특강에서 시련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세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NH농협금융지주는 2014년 7월에도 경북 문경에 위치한 특성화고인 문경공업고등학교에서 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을 열었다.



실력과 함께 인성, 열정, 창의성 갖춰라 이화여대에서 CEO 특강

언젠가부터 대학이 취업준비 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기업의 CEO는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2014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창조시대, 대학생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CEO 특강을 했다. 임 회장은 특강에서 “시대의 흐름에 내몰리지 말고 실력과 함께 좋은 인성, 열정,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련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길 바란다.”며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조기 금융교육이 금융선진국 만든다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후원

“금융선진국인 영국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만으로 기업을 만들어 금융업무 · 경영기법 등을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금융교육이 오늘날의 금융선진국을 만든 든든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이 밝힌,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3기째 후원하고 있는 이유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8월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눈높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창단 한 이후 2년 동안 11만 3120명의 초 · 중등학생에게 총 1787회의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봉사단이 창단할 때부터 3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봉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NH농협은행이 전국 각지에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점포망을 네트워크로 이용하여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의 지역별 조직구성 및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NH농협금융지주는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청소년의 금융지식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배움이 있는 곳으로 밝은 미래가 다가옵니다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교육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대한민국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교육에 많은 공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인증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창의적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기회 확보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달성한 기관만이 선정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금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교육기부기관

교육부

고객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꿈꿔요! 3500회 이상 행복채움금융 교육 실시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무려 3716회가 실시되어 28만 명이 참가한 NH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바로 '행복채움금융' 교육이다.

'모두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NH농협은행의 미션이 바탕이 된 행복채움금융 교육은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금융재테크, 우리아이 미래설계,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재능 나눔 봉사활동이다. NH농협은행에는 663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RMC)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서민층, 중상위계층,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설계, 은퇴설계, 시니어·신규직원·공무원 등 대상별 금융재테크, 서민·새터민·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리적 재테크, 찾아가는 진로교육·은행직업체험교실 등의 청소년 교육, PC 활용기법,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니어, 청소년, 다문화가정·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맞게 댄스스포츠 강습, 노래교실,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어려운 금융교실에 재미를 더했다.

행복채움금융 교육은 2011년 335회 실시해 3만 4405명이 참여했으며, 2012년 729회에 6만 5100명이, 2013년 1407회에 1만 9979명이, 2014년 1245회에 7만 7094명이 참여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012년 행복채움금융 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정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교육기부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상하는 '경향금융 교육대상'을 금융권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다. 또 2013년 6월 행복채움금융의 일환으로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도별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실 운영을 비롯해 진로체험의 날 행사에 따른 일일교사 지원, 찾아가는 금융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한 행복채움금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행복이 솟아나는 엔돌핀처럼! 행복채움금융 대학생 봉사단 N돌핀 활동

NH농협은행의 이니셜 N과 역동적인 돌핀(Dolphin)이 만나 만들어진 N돌핀.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실어 나르는 엔돌핀의 역할을 하자는 의미로, NH농협은행에서 창단한 행복채움금융 대학생 교육기부 봉사단의 이름이다.

2013년 5월 창단한 N돌핀은 '우리들의 열정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값이의 가치'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창의와 인성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돌핀은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생들과 만나고 있는데, '청소년 금융교육동아리' 창설 및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금융지식을 이해시키고 시장경제이론 연구와 경제영어 등 다양한 금융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은행 업무를 체험해보는 '은행직업체험교실'도 N돌핀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활동이며, 다양한 전공을 지닌 N돌핀 단원들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진로 멘토링'과 창의 연극이나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경험하는 '창의·문화예술 융합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전국 초·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기부·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N돌핀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기부의 범사회적 확산,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생 동아리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융전문가를 꿈꾸는 꿈나무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참가



파란 하늘이 참 예뻐던 2014년 9월 중순, 일산 킨텍스에 열린 교육기부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부스마다 들러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아이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NH농협은행은 2014년 9월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가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참가한 이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대를 통해 학교 안과 밖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H농협은행은 1회 교육기부 박람회 때부터 매년 참가해 왔으며, 2014년에는 부스를 더 확대해 은행직업체험, 진로탐색상담, 신비한 금고체험관, 인성체험관, 게임존 및 포토존, 전시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NH농협은행의 부스는 총 225개의 참여 부스 중 인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금융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기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꿈과 끼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자 금감원 금융교육 네트워크 상생협력 지원



NH농협은행은 행복채움금융교실을 비롯한 행복채움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네트워크와 상생협력하고 있다. 시도별 각급학교, 농촌지역 등 소외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2014년 11월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시범학교 25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 55개교, 2013년에 103개교, 2014년에 93개를 선정했으며, 수혜인원은 2만 2000명, 수혜학교 예산지원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13회 지원해 수혜 인원이 9091명에 달하며, 금융감독원의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2012년 창단 때부터 해마다 후원해 후원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나섰다! 금감원과 사회공헌 대행사 공동 실시

금융교육, 의료봉사, 법률상담, 문화공연에 일손 돕기까지, 그야말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공헌활동이 한 자리에서 모두 모였다.

NH농협은행은 무료 금융상담 시스템인 금융사랑방버스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천시 봉양읍에서 '농업인 행복채움을 위한 사회공헌 대행사'를 2013년 6월 실시했다. 35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이 따뜻한 금융의 울타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한 의료봉사, 법률상담, 장수사진 촬영 등 비금융상담 및 봉사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및 NH농협은행 행복채움 금융 N돌핀봉사단이 농업인 자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금융교실을 진행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인근 마을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함은 물론, 감자꽃 따기 등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감자용 저울, 콩 탈곡기, 감자 수확기, 실버보행기 등의 물품을 증정했다.

더불어 살기를 배우는 아름다운 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지구촌학교' 3년째 후원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더 많아진 것이다. 그만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때다.

NH농협카드는 2014년 9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사랑나눔' 산하 부설기관인 '지구촌학교'를 방문하여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고객들의 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계층을 돕고 있는 NH농협카드는 지구촌사랑나눔에 2012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지구촌사랑나눔은 1992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쉼터 운영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부설기관인 지구촌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기받은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로,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형 초등학교 및 중학교이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행복한 대한민국카드'를 통해 적립된 공익기금으로 지구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실 증축과 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었다.



인재와 기업 둘 다 웃게 하다 마이스터고-중소기업 취업 연계 사업 참여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한다. 마치 자기 짝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 같다.

그래서 NH농협은행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주기 위해 국립 마이스터고의 우수 학생들을 기술혁신형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이노-마이스터고' 채용 연계 사업에 참가했다. 이 사업은 NH농협은행이 2011년 8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국립마이스터고(부산기계·전북기계·구미전자공업고)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립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이노비즈협회가 선정한 우량 중소기업에 현장연수를 보내고 졸업 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인데, NH농협은행은 이노비즈기업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장학금을 연 100명 내에서 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2013년 1월에 졸업생 83명에게 장학금 4억 1500만 원을, 2014년에는 85명에게 4억 250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까지 세심하게 신경쓰며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2012년부터



국립 마이스터 고교생들이 참가하는 '이노-마이스터' 취업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농협 번산수련원에서 국립 마이스터 고교생 100여 명과 함께 하는 '제3기 이노-마이스터' 취업 캠프가 열렸다. 캠프에서는 취업 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 및 직장예절과 소통 기법 등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직장생활백서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합동극을 준비해 공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구의 신들이 등장했다! NH농협은행 정구부 재능 기부

대한민국 최고의 정구부가 강원도에 등장했다. 선수 7명 중 6명이 국가대표일 정도로 막강 전력을 자랑하는 NH농협은행의 여자 정구부가 그 주인공이다.

NH농협은행 정구부는 2013년 7월 강원도 횡성에서 정구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NH농협은행 정구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을 어린 꿈나무들과 후배 선수들에게 기부하고자 계획되었으며, 강원도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구부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NH농협 정구부 선수들은 학교별로 선수를 배정해 맞춤 정구 코칭을 하는 등 기술을 전수하고, 참여한 정구부 학생들에게 총 1000여만 원의 정구용품들을 전달했다. 또 NH농협은행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정구연맹과 이 자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정구 꿈나무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했다.



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 농협 울주군지부 매년 도서 6000권 기증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여 책을 읽는 아이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는 2014년 6월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일부로 울주군에 5000만 원어치의 책 6000권을 기증했으며, 울주군은 기증받은 책을 지역 초등학교와 작은도서관 등 28개 기관에 배부했다.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는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지역 초등학생들의 독서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권장도서를 6000권씩 기증해오고 있다.

학창시절 추억을 공짜로 드려요 소규모 학교 졸업앨범 무상 제작

졸업앨범은 학창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추억의 상징이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20%인 2190개 초·중학교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졸업앨범 없이 졸업했다고 한다. 그래서 농협과 교육부가 손잡고 도서·벽지의 소규모 초·중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졸업앨범 무상제작 지원사업에 나섰다. 농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5000만 원을 들여 졸업생 3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에 졸업앨범 무상제작을 지원해 지리적 요건이나 학생 규모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장학금 전달**

“함양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언제나 가까이 있는 NH농협은행을 보면서 커서 멋진 금융인이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열중한 결과 우수 지역인재로 농협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던 NH농협은행이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NH농협은행 경남 함양군지부의 장학금을 받은 부산동명대학교 경영학과 정만규 학생의 소감이다.

NH농협은행 경남 함양군지부는 2014년 7월 함양의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167만 원을 기탁했다. 함양군지부의 장학금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3억여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함양 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흠뻑처럼 짜릿하고 신나는 하루!
NC다이노스와 소규모 학교 스포츠체험 지원**

경기를 보는 것도,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도 신나는 아이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경남교육청과 함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NC다이노스와 함께 2014년 8월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문화 체험활동’ 지원금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또 18개교 720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초청해 3회에 걸쳐 NC다이노스 홈 경기 무료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경상남도교육청, NC다이노스가 창원시 관내 소규모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스포츠문화 체험을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 2013~2014년 2년 연속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14년 7~8월에는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양파즙을 1000여 명의 관람객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가을에 펼쳐진 테니스의 향연
고양에서 국제 테니스대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환원 활동에 적극적이다. 해마다 고양에서 펼쳐지는 ‘NH농협은행 고양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 역시 그 일환이다. 2014년 7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10월 7박 8일간 고양시립테니스코트에서 13개국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7년의 역사를 가진 이 대회는 농협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테니스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수준 높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많은 관중들이 꾸준히 경기장을 찾으면서 국내 최고의 챌린저 대회로 성장했다. 또한 관중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고양시 동호인테니스대회, 남녀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매직테니스’, NH농협은행과 고양시청 테니스단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한편 농협은 테니스부를 1974년 창단했고, 현재 감독과 코치, 선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예쁜 꿈을 큰 소리로 응원합니다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기업의 큰 책임으로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NH농협생명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경제·금융 교실 개최, 도서 기부 캠페인, 체험교실 진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어렵지 않아요!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운영

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는지 아이들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는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다음에 꼭 다시 외주세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3~4월 전국 16개 시·군에서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했다. '모두'와 '두레'의 합성어인 '모두레'는 농협의 협동조합 정신과 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을 담은 말로, NH농협생명은 경제·금융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하도록 돕고자 했다. 교육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및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경제·금융교실에서 어린이들은 이론학습과 팀워크 게임 등을 통해 경제·금융의 개념과 보험의 중요성, 상부상조 정신에 대해 배웠다. 경제·금융교실에 참가한 총 학생 수는 400명에 이르렀다.

김해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한 NH농협생명 경남총국 박성면 총국장은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내부 임직원 강사 양성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아이들 맘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새겨지길! 고려인 동포 어린이 위한 농촌체험교실 개최

'고려인'은 1860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들 중 약 3만여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대체로 모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농협생명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진 고려인 동포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농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4년 9월 경기도 연천군 나룻배마을에서 농촌 체험교실을 열었다.

농협중앙회의 '食사랑農사랑' 캠페인과 연계한 이 행사에는 고려인 어린이들과 그 가족이 참가했다. 참여자들은 고구마와 배를 수확하고, 감자전을 부쳐 먹는 등 시골밥상을 체험했으며, 나룻배를 타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 투어를 하면서 모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생업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들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어린이들의 체험을 도왔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어느새 정이 들어 헤어질 때는 서로 한참동안이나 손을 흔들며 아쉬워했다.

나동민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모국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농촌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앞으로 도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책 속에 꿈과 희망이 숨어 있어요 임직원 기증 도서 지역아동센터로 전달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을 그린다. 아이들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NH협생명 임직원들이 책을 모았다.

NH협생명은 행복자산 도서나눔 사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증한 아동·어린이·청소년 도서 1000여 권을 2012년 10월 한글날을 맞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전달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전국 비영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 및 권리보장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전국 지역아동센터들의 연합체이다. 이날 전달된 도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졌다.

NH협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린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절미 만들기가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소외계층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교실 개최

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도 떡메를 번쩍 쳐들었다가 쿵쿵 내려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어느새 아들 아들 쫘득쫘득한 인절미가 만들어졌다. 아이들은 처음해보는 경험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다.

NH협생명은 2013년 6월 이천 자채방마을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농촌문화 체험교실을 개최했다. 농업박물관과 연계하여 진행된 농촌문화 체험교실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과 그 가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감자 캐기, 미꾸라지 잡기, 인절미 만들기, 트랙터 타기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건강한 현장 체험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가족 간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미꾸라지 잡고 인절미 만드는 것이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놀러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언제나 안전하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투명우산 전달**

출범 2주년을 맞는 NH농협생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멋진 입학 선물을 준비했다. 비오는 날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투명우산이 바로 그 선물이었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3월 서울 미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투명우산을 전달했다. 우천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에 착안해 투명비닐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우산을 선택한 것이며, 새내기 초등학교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미동초등학교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소재 14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총 2000여 개의 교통안전 투명우산이 배부되었다. NH농협생명 나눔민 대표이사는 “비오는 날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입학 선물로 투명우산을 준비했다. NH농협생명은 앞으로도 농업인, 홀몸 어르신,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증권

NH농협증권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축인 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이 꾸리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섰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NH농협증권은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을 만드는 데는 NH농협증권 임직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뿍 들어갔다. 앞으로도 NH농협증권은 행복을 채우는 '이룸'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이제 정보기와 요리는 걱정 끝!
다문화가정에 우리 먹거리 소개 책자 지원**

멀리 한국으로 시집 온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은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조리법이 낯설 수밖에 없다. 한국식으로 삼시 세끼를 차리는 일이 어색하기만 하다.

이에 NH농협증권은 다문화가정에 우리 먹거리를 소개해 한국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우리 농축수산물과 그 우수성을 소개하는 책인 <우리 농축수산물, 알고 먹어요>를 2014년 11월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200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했다. 결혼이주여성이 꾸러가는 다문화가정에서 장을 볼 때 도움이 되는 우리 먹거리 100여 종에 대한 소개와 농축수산물을 고르는 방법, 조리법 외에도 우리 먹거리와 관련한 건강 상식과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법 등 생활 상식도 수록했다. 책자는 전국 NH농협증권 지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다.

한편 NH농협증권은 2014년 3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다문화가정 우리먹거리 소개 책자 제작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지원금은 NH농협증권 임직원들이 7개월 동안 매달 급여 끝전을 모으고 회사도 동일 금액을 후원금으로 내놓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했다.

김병관 NH농협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이 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이 우리 농축수산물과 친숙해져서 한국 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계기로 ‘다문화’에서 ‘한문화’로 이름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이제 더는 속지 마세요!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실시**

‘대포통장, 불법대출광고 금융 사기의 시작입니다.’, ‘악성코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NH농협금융 직원들이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시민들을 만났다.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날이 날수록 교묘해지고 있기에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다.

NH농협증권, NH-C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물 임직원 60여 명은 2014년 3월 ‘전자금융 사기 예방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의 홍보 및 고객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의도역, 셋강역 등 여의도 일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너의 꿈이 있는 그곳까지 높이 날아올라라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CA 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A Joint Venture with Amundi

NH-CA자산운용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초중등학생의 해외문화탐방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 채움 콘서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섬의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오페라 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NH-CA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소외계층 청소년 위한 '희망 채움 콘서트' 개최

꿈꾸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법! 꿈을 가진 청소년이아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미래다. NH-CA자산운용이 2014년 2월 신학기를 맞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청소년 희망 채움 콘서트'를 개최했다. NH-CA자산운용의 '장기성장 대표기업 펀드' 기금을 활용해 열린 이 행사는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NH-CA자산운용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콘서트에는 소외계층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작은 음악회를 겸해 특강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NH-CA자산운용 이태재 대표이사는 "NH-CA자산운용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넓은 세상 너의 꿈을 맘껏 펼치렴!
'출발! 아이사랑 드림캠프'와 울릉도 오페라 '카르멘' 공연 개최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더 큰 꿈을 갖게 된다. 해외여행과 문화 공연 관람으로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됐다.

NH-CA자산운용은 2014년 8월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출발! 아이사랑 드림캠프' 행사를 진행했다. 드림캠프는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역사, 문화, 경제 탐방 프로그램으로, 2014년 5월 초등학교, 8월 중학생 50명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에 다녀왔다. 지난 2008년 시작된 드림캠프는 일본 문화 탐방, 미국 서부 명문 대학 방문에 이어 2012년부터 중국 북경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북경 탐방 행사는 연 2회에 걸쳐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한편 NH-CA자산운용은 NH농협은행, 조선오페라단과 함께 2012년 10월 울릉도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도 내 초중고교 재학생 및 울릉군민을 대상으로 오페라 '카르멘'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NH-CA자산운용 '대한민국 SRI 펀드' 판매기금과 조선오페라단 소속 성악가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공연은 2012년 8월 NH아트홀에서 열린 오페라 페스티벌의 '카르멘' 앙코르 공연으로 이뤄졌다.



나눌수록 좋아요! 함께 가야 행복해요!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물품 기증

'이삭의 집'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할 나이에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기관이다.

NH-CA자산운용 임직원들은 2014년 3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이삭의 집을 방문해 강당과 식당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필요한 물품을 기증했다. 매년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이 경영지원본부 과장은 "작은 부분이지만 남을 도울 수 있어 기뻐요. 이런 봉사활동이 특별한 활동으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NH-CA자산운용은 이삭의 집과 2009년 자매결연 후 해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꿈이 자랄수록 밝아지는 우리의 미래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캐피탈

NH농협캐피탈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자매마을 인근의 초등학교에 신문과 잡지를 보내는 것도, 복지시설의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NH농협캐피탈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NH 농협 금융사회공헌팀

안녕하세요? 저는 단양초 장정분교에 다니고 있는 장정분교입니다. 제가 이런지를 전히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들께서 저희 학교에 신문 기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히요! 겨울 재능 기부 연회에 신문쓰러온 공로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겨울 재능 기부 행사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신문을 기증해주세요. 저와 친구들은 졸업할지 모르지만 동생들이 저와 같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 드려요. 연말까지요. 2013년 12월 2일 장정분교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을 가지길! 장정분교에 소년한국일보 등 기증

충북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초등학교는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한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로, 5학급에 7명이 옹기종기 모여 공부하고 있다. NH농협캐피탈은 장정분교에 소년한국일보와 농협에서 발간하는 월간 <어린이동산>을 보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장정분교는 NH농협캐피탈과 1사촌을 맺고 있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마을 인근의 초등학교다. NH농협캐피탈은 일손 돕기에 그치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정분교에 신문과 잡지를 기증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장정분교의 유권한 어린이는 “보내주신 신문을 보며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얻어요. 신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커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신문을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야호! 놀이동산에서 신나는 하루 보내요 복지센터 아동 위한 봄나들이 및 뮤지컬 관람

화창한 봄날은 나들이의 계절이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아마도 신나는 놀이동산이 아닐까 싶다. NH농협캐피탈 임직원들은 2014년 5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애신아동복지센터 아이들 32명과 함께 행복한 나들이를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NH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도 함께했다. 나들이 장소는 과천 서울랜드로, 아이 1명과 직원 1명이 일일가족이 되어 각종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또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애신아동복지센터에 우산 100여 점과 모자, 목우촌 선물세트 등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연말에는 NH농협캐피탈 뮤지컬동호회 'Culture Factory'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중고생) 5명과 인솔 교사를 초청해 뮤지컬 '카르멘'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관람 후에는 김중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랑으로 바라요, 아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말 맞아 서울후생원 방문 및 선물 전달

겨울은 가장 추운 계절이기에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 뜨거운 사랑 앞에는 동장군도 풀이 꺾이기 마련이다. NH농협캐피탈 임직원들은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들과 함께 2013년 12월 연말을 맞아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방문했다. 임직원들은 후생원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00여 점의 방한용품과 직원들이 직접 만든 100여 권의 수첩과 노트 등 선물을 한 아름 전달했다. 후생원 방문 전에 임직원들은 이면지를 이용해 심혈을 기울여 예코 수첩과 노트를 직접 만들었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방임과 학대·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지도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아동생활시설이다.



끝이 없는 배움 그 가운데 깊어가는 삶의 지혜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의 사회공헌활동은 전사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 '밝은 세상, 우리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국의 우수 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희망나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른 경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펼치고 있다. 또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노년을 위한 인생대학을 개설하기도 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교육의 장
옥토 주니어 캠프 · 100세시대 인생대학 개최

사람에게는 배움의 욕구가 있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어린 시절부터 삶의 지혜를 채우고 싶은 노년 시기까지 사람은 일생을 두고 배우고 또 배운다.

우리투자증권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옥토 주니어 캠프'를 준비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초·중·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옥토 주니어 캠프는 교육열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는 명품 캠프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청소년들의 경제관념 함양과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노년 세대를 위해 2012년 서울대학교와 '100세시대 연구조사 및 교육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100세시대 인생대학'을 개설하여 2014년 4기 학생들을 배출하였다. 100세시대 인생대학에서는 김난도 교수 등 명망 높은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노후의 자산관리, 노후 심리, 건강, 가족관계, 사회참여 등 전방위에 걸쳐 노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기후난민 지역아동 위한 '희망T 캠페인' 실시

우리투자증권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2013년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기후난민 지역 아이들을 위한 '희망T 캠페인'을 벌여 임직원 및 가족 120명이 동참하였다. 희망T 캠페인은 재해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가 실시하는 것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 어린이에게 영양결핍치료식과 직접 그린 티셔츠를 보내는 기부 캠페인이다. 티셔츠 2장, 물감, 붓 등이 들어있는 희망T그리기 키트 세트를 구매하면 기후난민 어린이에게 7일분의 영양결핍치료식이 전달되며, 직접 그린 티셔츠 역시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구호품으로 전달된다.



꿈나무들의 열매가 예쁘게 영글기를!
제9기 희망나무 장학생 39명에게 장학금 전달

우리투자증권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꿈나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매년 전국의 우수 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비 일체를 지원하는 희망나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제9기 희망나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열려 총 39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희망나무 장학금은 전국의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등록금 전액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대학입학 시에는 1인당 10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규 장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선배 장학생들을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희망나무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과 해당 지역의 우리투자증권 지점이 자매결연을 하고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3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부터 탈북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새터민 자녀들이 다니는 삼흥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삼흥학교는 오전에는 일반 초등과정 교육을, 오후에는 학력보충 및 특성화 교육을, 야간에는 교사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다. 우리아비바생명은 탈북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을 전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야구장은 언제나 즐거워! 새터민 자녀 야구장 초청 행사

파란 막대풍선을 흔드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넘쳐났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2년 5월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우리아비바 데이' 행사에 삼흥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 60여 명을 초청했다. 2011년 개교한 삼흥학교는 육아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가정을 위해 설립한 대안학교로,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8~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과정을 교육하는 기숙형 학교이다. 우리아비바생명과는 2011년 크리스마스 케이크 함께 만들기 행사를 하며 인연을 맺었다. 야구장 초청은 삼흥학교 학생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흥학교 채경희 교장은 "탈북 가정 어린이들의 경제적 빈곤 해결이나 학습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행사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제안 마일리지, 이웃사랑의 새로운 방법 삼흥학교에 제안 마일리지로 모은 1000만 원 기부

우리아비바생명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멋진 제도, '제안 마일리지'가 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상시 또는 기간을 정해 이벤트 식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아이디어 실행 이후 평가를 통해서도 마일리지가 또 주어진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급여통장으로 캐시백하거나 모금활동에 기부할 수 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8월 삼흥학교를 방문해 탈북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우리아비바생명 임직원들의 제안 마일리지 기부를 통해 모은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급여끝전 기부금 500만 원으로 마련되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매년 연말에 아이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김장김치 200포기와 사랑의 쌀 100kg을 후원하는 등 삼흥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켜진 컴퓨터 정보화 소외계층 위한 불용 컴퓨터 기증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불용 컴퓨터가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깨어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12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본부'에 중고 컴퓨터 811대와 모니터 747대를 전달했다. 이날 기증된 PC는 성능 향상 과정을 거쳐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상으로 보내졌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불용 처리하는 컴퓨터를 재조립하여 소외계층 이웃들이 정보격차 해소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With always

언제나 같이



의료 · 건강 · 실버

“그 누가 까마귀를 꺾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보은(反哺報恩)이 이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조선시대 박효관의 시조입니다. 까마귀가 깃털이 꺾고 울음소리도 과하게 불길한 징조의 상징이라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까마귀는 은혜를 아는 새입니다. 어릴 때 어미 새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으며 자란 걸 잊지 않고,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으로써 키워 준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포보은의 뜻입니다. 걸보기와 달리 따뜻한 속을 가진 새이지요. 혼자 외로이 사는 독거 어르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회를 위해 평생 고생했지만 지금 남은 것은 고독과 아픈 몸뿐입니다. 그래서 NH농협금융은 반포보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딸이 되어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고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 지원, 노인 복지, 힐링 프로그램 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4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임직원 단체 헌혈 등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및 순회 진료활동 등의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격하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채움 실버 프로젝트', 국가유공자와 이산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환경개선, 삼계탕 후원 등 경로당 지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적적함을 달래고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는, 말하자면 어르신들의 생활 터전과도 같은 공간이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는 경로당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임직원들이 서울 수색동에 위치한 산장경로당을 방문하여 건물 외벽 도색, 현관문 및 창문 교체 등 환경개선 활동을 벌이고, 배식봉사와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도 실시했다. 또 같은 날 서울 소재 경로당 60개소에 삼계탕 2000인분을 후원했다.

4개월 후인 2014년 7월에는 초복을 앞두고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울곡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고,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과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쉼터인 평상을 만들어 기증했다. 또한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위치한 51개 경로당에 삼계탕 1300인분을 지원했다.

NH농협금융지주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버층의 건강과 행복을 채우기 위한 '행복채움 실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봉사활동에 나선 NH농협금융지주 이경섭 부사장은 "농협금융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채워 드리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행복채움 실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언제나 씩씩한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어린이 환우들과 힐링 프로그램 실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 놀지 못하고 병원 안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 장기 투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원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NH농협금융지주 봉사단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환우 30명과 함께하는 '행복채움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병원학교 어린이들과 전통떡 만들기 체험교실을 진행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고려해 특별히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우리쌀을 사용했다. 또 임직원 단체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 200매와 어린이 환우들이 병실에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교육교구 등을 기증했으며, 지방에서 올라 온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생활시설인 쉼터에 농협김치 등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함께한 NH농협금융 임종룡 회장은 "농협금융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어린이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송고한 희생과 애국심 잊지 않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방문

주먹밥과 찢 감자, 지금은 별미로 먹지만 반세기 전에는 우리 민족의 목숨을 부지해준 귀한 먹거리였다. 그리고 주먹밥과 감자로 연명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귀한 사람들이 있었다.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 우리투자증권 김원규 사장 등 임직원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14년 6월 수원에 위치한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들과 함께 뜻 깊



은 시간을 보냈다.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들과 주먹밥, 찐 감자 등 전쟁음식을 직접 만들어 함께 나누며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식사 수발, 발 마사지, 말벗 봉사, 산책 동행, 프로그램 활동 보조 등의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국악공연단을 초청해 군가 등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전통리프트와 다용도 휠체어를 기증했다.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현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요양 중이다.

임종룡 회장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잊지 않겠다"며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2013년 6월에도 보훈요양원을 찾아 같은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작지만 큰 사랑의 실천 사랑의 단체헌혈 실시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가장 손쉽지만 강력한 방법, 바로 헌혈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4년 2월 농협 본관 대강당에서 사랑의 단체헌혈을 실시해, 당일 212명이 헌혈하고 116장의 헌혈증이 모였다. 임직원들은 보다 건강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해 헌혈 1주일 전부터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는 노력을 했다. 이번 단체헌혈은 혈액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겨울철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NH농협금융은 중앙본부 헌혈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 자회사가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 모아 추석맞이 실향민과 임진각 합동 차례

남북이 갈라진 지 60년이 넘었다. 실향민들의 나이도 그만큼 많아졌다. 하루 빨리 그리운 고향 땅을 밟고 혈육과 만나고 싶은 마음도 흘러간 세월만큼 간절하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4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등 고향의 실향민 123명을 초청해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합동차례상을 마련해 차례를 지내는 망향경모대제를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실향의 아픔에 빠져있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망향경모대제는 성균관 황익옥 상임전례위원이 직접 집전하고, 전문 국악인이 차례악 연주를 하는 등 격식을 갖춰 진행됐다. 차례를 마친 뒤에는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통일 염원을 기원하는 타일을 만들고 도라산 전망대 안보 견학을 실시했다. 2013년에는 실향민들은 합동 차례를 마친 뒤 통일의 소망을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묶고, 대형 연에 통일 염원 리본을 매달아 북으로 날리기도 했다.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산가족 분들은 임진각을 찾아 망향제를 올리기조차도 녹록치 않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합동 망향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산가족이 그리운 고향 땅을 밟아보고 일가친척을 만나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당신을 보듬고 위로해요

4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건강한 삶, 안락한 노후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들이다. NH농협은행은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고객센터 직원들이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낮선 한국 땅에서 아프지 말길!
네팔 농업근로자에게 구급상자 전달**

가장 서러울 때가 혼자 있을 때 이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낮선 이국땅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이 발 벗고 나섰다.

NH농협은행 경영기획본부와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소속 직원 24명은 2014년 4월 경기도 시흥시 한국지도자아카데미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 농업근로자 150여 명에게 필수 의약품이 담긴 구급상자를 전달하고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한국 생활 조기 적응을 돕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60개의 구급상자가 봉사단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구급상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상처가 났을 때나 기후와 음식이 안 맞아 몸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상처치료연고,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약품들로 구성됐다. 체육대회에서는 봉사단 직원들과 외국인 농업근로자들이 축구, 배드민턴, 배구를 하며 땀 흘리는 가운데 친선을 도모했다.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소아암 어린이 치료 위한 후원금 전달**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병마와 싸우며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기를, 어서 건강을 되찾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모았다.

NH농협카드는 2014년 7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한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소아암 전문 민간단체로, NH농협카드가 2012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대한민국카드'를 통해 적립된 공익기금이며,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아암 수술을 위한 이식준비물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주 주민 대상 의료봉사 실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관내 농업인들의 건강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다. 2013년 8월 NH농협은행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촌사랑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업무 협약 체결을 맺은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2013년 10월에는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경로당 회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2014년 8월 농촌사랑 1사촌 운동으로 자매마을이 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에서도 자매결연 후 마을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 지원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2014년 10월에는 제주 초천농협 조합원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의료봉사에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간암, 심전도, 흉부촬영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4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혼자 되어 쓸쓸히 지내는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협약을 체결해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9년째 농촌순회 무료진료 사업을 벌이며 적극적인 복지환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타공인 농촌 건강 지킴이 10만 명 농촌 순회 무료진료 실시

NH농협생명은 자타가 공인하는 농촌 건강의 지킴이다. 1960년대부터 농촌의료 지원사업은 NH농협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지난 2006년 서울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저소득층 농업인과 독거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H농협생명은 2006년 12월 서울대학교병원과 농촌의료 지원사업 협약을 맺은 후 지난 9년간 총 96억 원의 협력기금을 전달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83회의 농촌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해 의료 취약계층 10만여 명을 진료했다. 특히 2012년 보험사 출범 이후에는 기존 연간 12회의 진료횟수를 15회까지 늘렸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진료 세션,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여성질환 집중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농촌순회 무료진료에서는 내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총 8개 과목의 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인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료 및 검사는 종합병원급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되고, 약 제조, 투약 설명, 건강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해 경제적·지리적 여건상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용진농협 정완철 조합장은 “대도시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농업인, 조합원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가 좋은 선물이 되었다. NH농협생명과 서울대병원의 농촌순회 무료진료가 농촌 의료취약계층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농촌도 돕고 기부도 하니 일석이조! 독거 어르신에게 농협 제품 기부

NH농협생명은 농협의 국산 농산물 제품을 이용해 독거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일석이조 기부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NH농협생명은 2013년 7월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 목우촌의 국내산 닭으로 만든 삼계탕 1200인분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NH농협생명 임직원 20여 명은 서울 은평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삼계탕을 직접 배식했으며, 나머지 400인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해 식품 구입이 힘든 은평구 거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었다.

2013년 9월에는 은평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지역 독거 어르신 섬김 행사에서는 은평구 관내 중점관리 대상 독거 어르신 350명에게 농협 목우촌 햄 세트와 농협 한삼인 멀티비타민을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복지관을 찾은 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식봉사를 했다. 또 2013년 12월에는 연예인 봉사단 ‘하프 앤 하프’(단장 이홍렬)와 함께하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위안잔치를 후원했는데, NH농협생명은 목우촌 햄과 한삼인 비타민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구로구 내 독거 어르신 950여 명에게 전달했다.





사기 전화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노인의 날 맞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보이스피싱 때문에 힘겹게 모은 아까운 돈을 잃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NH협생명이 나섰다. 2013년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중식 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NH협생명 이호영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FC들이 함께했고, 전문 강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도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위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꽤 들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해줘서 참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NH협생명은 2013년 연말까지 강서구 외에도 5개 이상의 지역에서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펼쳤다.



저희들이 든든한 아들딸이 되어 드릴게요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 협약 체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벗이 되거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사업이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랑 잇기'가 그것이다.

NH협생명은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 사랑잇기' 제7차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보호 사각지대의 독거 어르신에게 상시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과 건강 확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 7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NH협생명이 이번 사업 협약에 참여하게 된 데는 서울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실시해온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배식봉사, 물품지원 등의 활동이 계기가 되었다. 협약 체결 후 NH협생명은 사회복지사,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노인돌봄 서비스 신규인력 700여 명에게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노인돌봄 사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작은 주머니 한가득 커다란 행복 신입사원, 독거 어르신 위한 행복주머니 제작

신입사원들이 직접 정성을 다해 포장한 '행복 주머니' 안에는 삼계탕, 김치, 김, 햄, 라면 등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가득 담겼다.

NH협생명은 설을 맞아 2014년 1월 행복 주머니를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NH협생명 신입사원 40명이 참여해 3만원 상당의 식품 주머니를 직접 포장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400명에게 전달했다. NH협생명은 출범 이후 매년 신입사원들이 나눔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신입사원은 “홀로 사시며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드시기 힘든 어르신들께 행복이 담긴 진짚상을 차려드린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NH협생명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며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 비전 실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건강에 좋은 양파 많이 드세요!
노인복지센터에 양파 및 양파즙 기증

생산과잉으로 시세가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고, 이른 더위에 지친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NH농협생명이 대대적인 양파 기증행사를 벌였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5~6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의 경로식당과 건강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에게 햇양파와 건강 양파즙을 지원했다. 경로식당 13개소에는 총 5600kg의 양파가, 56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양파즙 50개들이 560박스가 제공되었다.

양파를 받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는 “양파를 이용해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카레, 된장국, 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에 들어간 양파를 맛보시고는 아주 맛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라고 했고, 또 양파즙을 받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이순희 어르신은 “평소 고혈압과 골다공증 등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대상포진까지 생겨 밤이면 너무 아파요. 양파즙이 몸이 좋다는데 이거 먹고 기운을 내야겠어요.”라며 활짝 웃으셨다.



외롭지 않기! 아프지 않기! 언제나 행복하기!

4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사회공헌활동 비전 아래 임직원 모두가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항상 이웃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서 보험의 본질인 '헤아림'을 마음에 품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임직원들은 소외이웃을 위한 물품 지원 및 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무료급식 활동을 하고, 노숙인 쉼터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앞으로 더욱 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반달처럼 예쁜 송편! 보름달처럼 가득한 행복!
추석맞이 송편 나누기 봉사**

“아유, 예쁘게도 빚었네. 예쁜 딸내미 낳겠구먼!” “예끼, 내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낳누?” 송편을 빚으며 즐거운 농담이 오가니 어느새 화기애애한 명절 분위기가 가득하다.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은 2013년에 이어 2014년 9월에도 추석을 맞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양로원을 방문하여 송편 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명절이면 더 적적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추억을 듣고 교감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봉사단원들은 양로원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손수 준비한 갈비탕과 나물 등 명절 음식을 대접했다. 또 송편 100kg과 추석 준비에 활용할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한편 서울 은평구 소재 무료급식소인 나눔의 동지도 방문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송편 100kg을 제공했다.

푸짐하고 따뜻한 송편만큼, 더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시간, 그리고 어르신들의 추억이 담긴 옛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청운양로원 어버이날 방문 및 자원봉사**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첫 소절만 듣고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머님 은혜다.’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원들은 2014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청운양로원을 찾았다. 비록 친 부모님은 아니지만, 평생 고생하며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셨을 양로원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날은 청운양로원 어르신 중 팔순과 구순을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모님을 위한 팔순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쌓은 잔치상에는 푸짐한 과일과 잔치 음식들이 채워졌다. 또한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흥겨운 재롱이 이어지기도 했다.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행사 자원봉사를 하고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양로원의 모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뜨끈한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중복 맞이 삼계탕 나누기 봉사활동 실시**

겨울철 추운 날씨만큼 장마철 무더위도 어르신들을 힘들게 한다. 든든한 보양식 한 그릇이 꼭 필요할 때다.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은 2014년 7월 중복을 맞아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했다. 봉사단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청운양로원’과 무료급식소인 은평구 소재 ‘나눔의 동지’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손수 요리한 삼계탕을 대접하고, 식사 후에는 제철 과일인 수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껏 닭을 씻고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삼삼오오 모인 봉사단원들 간에도 즐거운 대화가 오갔으며, 따뜻하고 푸짐한 식탁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걱정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4

힘모아 같이
더불어 같이
미래로 같이
언제나 같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또한 혈액 부족시기에 맞추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헌혈캠페인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염원하며 사랑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 왔어요!”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혼자 있어 가장 서러울 때는 아플 때다. 이럴 때 누군가 음식을 챙겨주고 보살펴준다면 그만큼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임직원들의 급여끝잔을 모아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겨울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추위가 풀릴 때까지 점심식사와 밑반찬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아비바생명도 추운 날씨에 홀로 지내며 거동조차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사에 참여한 것이었다.



**36.5℃의 따뜻한 사랑 나누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헌혈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본 전제로 하는 보험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봉사 활동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7월 전국 임직원 및 FC, TMR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라는 주제로 직접 참여와 헌혈증 기증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충정로 서울본사에서는 임직원 100여 명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는 한편,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70여 장의 헌혈증이 소아암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 우리아비바생명의 전국 50여 개 지점에서는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방법으로 동참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생명의 감동과 기적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있었다. 단체 헌혈 기회를 통해 건강도 체크하고, 소중한 생명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고 입을 모았다.



**당신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시니어 페스티벌 ‘열정’ 후원 및 봉사활동**

급게 화장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드디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열정의 시간이 펼쳐진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3년 11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하는 시니어 페스티벌 ‘열정’ 행사를 후원하고, 임직원들이 행사 안내, 객석 안내, 음향 보조, 공연팀 체크 등 행사 집행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페스티벌에서는 한국무용 등 14개의 어르신 공연과,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뽀리댄스, 상상 밴드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복지관 이용자, 지역 주민, 독거 어르신 등 약 500여 명이 공연을 즐기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시니어 페스티벌은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여 자신감을 갖게 하며,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 돌봄 받는 노인이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긍정적인 신(新) 노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나눔, 그 아름다운 동행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진 건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은 '나눔경영'이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였기에 1961년 창립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또한 시작되었다.

50여 년의 나눔경영 역사를 통해 농협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서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침반이자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그만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과 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으며, 2004년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농협재단을 설립했다. 또 2006년 이후에는 나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폭을 확대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착실히 걸어온 반세기, 어느새 농협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조직으로 우뚝 섰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다리가 되다

농촌과 도시의 진정한 상생, **식사량농사랑운동**

2014년 2월 농협중앙회

는 경기도 연천 새동지마을에서 우리의 전통음식인 장(醬)에 대한 소중함과 착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착한 장, 건강한 장, 사랑의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열고, 이 자리에서 담근 된장 1000kg과 국간장 240ℓ를 장애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행사는 농협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식사량농사랑운동'의 일환이었다.

'식사량농사랑운동'은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의 소극적 지원을 넘어 '상생'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에 굳건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즉 국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대국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문화를 확산시키고 먹는 것(食)과 농사짓는 일(農)이 결국 하나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1999년부터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식사량농사랑운동'과 연계하여 '팜스테이(farm Stay)'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농가에서 숙박하면서 농사·생활·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협중앙회는 팜스테이 마을 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농촌사랑운동**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농촌사랑운동'을 2004년부터 펼치고 있다. 농촌사랑운동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력 있는 농촌을 기쁨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都農相生) 운동으로, '1사촌 자매결연 운동'이 그 대표적인 활동이다. 농협은 기업 및 기관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록 돕고 있다. 1사촌 자매결연은 농업인에게
는 고품질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도시민에게
는 농촌 체험,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휴양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자매결연

이 1만 쌍을 돌파하고 교류 횟수도 4만 5000건이 넘었다.

농협중앙회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
에게 정부포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농촌마
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단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두 팔 건어붙인 농협 임직원들

농협은 농촌과 도시를 잇는 다리 역할에 만족하

지 않고, 농협의 근간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두 팔을 건어붙이고 솔선수범했다. 일손이 부족
한 농촌을 위해 농번기 때마다 교통이 불편하여 일반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 지
역과 고령 농업인을 우선으로 범농협 차원의 농촌 집중 일손 돕기를 실시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농
사일을 도왔다.

또한 재해 발생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역시 누구보다 빨리 임직원 일손 돕기를 실시해왔다.
태풍, 폭우, 폭설,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왔을 때는 조기수습을 위한 복구장비, 생필품, 후원금,
금융대책 등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농업인들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농
협 차원의 총력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한편 농협재단은 2011년부터 농협 장학생 봉사단을 꾸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
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번기나
재해 발생 시 농가 일손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 · 복지

농촌의 희망을 가꾸다

의사도, 변호사도, 사진사도 척척 대령이오!

2013년 3월부터 전국의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을 찾아가 복지 취약계층 농업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버스가 있다. 바로 '농업인 행복 버스'다. 무료 의료지원,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장수사진 및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문화예술 공연, 주거환경 개선, 일손 돕기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농업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협과 민간기관의 합동 봉사 프로젝트로, 2013년 10회에서 2014년부터는 50회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 부문이 축소되면서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등 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농촌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행복버스 도입 이전에도 복지 서비스 지원에 앞장서왔다.

2006년부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종합병원과 협력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농협재단

역시 의료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선천적·후천적 안면장애

농업인의 무료 성형수술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1995년부터 농업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민사사건 4362건, 형사사건 242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농업인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찾아가는 피해 구제 서비스로, 1998년부터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시군을 순회하여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1만여 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동상담실 운영횟수를 연간 16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랑과 희망의 집으로 탈바꿈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결코 좋을 수 없다. 노후화된 주택에서는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에서는 낡은 집을 고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중심이 된 '농가희망봉사단'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2005년에 결성하여 10년째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농가희망봉사단은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등의 전문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생활이 어려운 농촌의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붕개량, 보일러 점검 및 교체, 급수배관 보수, 전기배선, 전등 교체 등 전반적인 주택 수리를 무료로 봉사하는 기술봉사단이다. 농협은 2013년의 경우 총 120가구에 대해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농협재단은 NGO단체인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2012년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농촌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립식 목조주택을 새로 짓기도 하고 낡은 집을 새 집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하는데, 2013년의 경우 총 17가구에 대해 실시했다.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는 전국에서 모인 농협재단 장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인재육성

농촌 꿈나무들의 미래를 환히 밝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해요

농협재단은 설립 다음해인 2005년 농협장학회를 흡수합병한 뒤 매년 장학사업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재단은 매년 농업인 자녀 중 국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학기 최대 300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농협재단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에게 29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편 농협재단은 2014년 '농협 꿈 장학생'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농업인 자녀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국내 정규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꿈 장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고향의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꿈을 키워주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 출신 대학생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농협장학관

서울 우이동 북한산 입구에 자리한 농협장학관. 2011년 개관한 이곳에는 농촌에서 서울로 유학 온 농업인 자녀 500명이 생활하고 있다. 웬만한 호텔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농협장학관은 국내 최초의 민간 공익기숙사다. 농협장학관이 개관함에 따라 농협재단의 장학사업은 기존의 장학금 지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숙식을 제공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농협장학관은 농업인 및 그 자녀 중에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이들은 1인당 한 학기 50만원을 납부하고 그 외 추가 부담 비용 없이 1년 동안 농협장학관에서 생활한다. 농협장학관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컴퓨터실, 독서실, 음악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고,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1일 3회 제공하고 있다. 농협재단은 농협장학관을 단순한 숙식제공 장소가 아니라 미래 국가를 이끌 핵심 리더를 육성하는 산실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가 강의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촌을 위한 더 큰 꿈을 꾸어라

“여기는 고산지대라 아이들

이 학교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 농업재단 해외봉사단 대학생 20명이 베트남 산골마을을 찾아 공부방 5동을 건립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더니 준공식 날은 아예 동네 잔치날이 되었다. 봉사단원들은 여성결혼이주자의 친정집을 찾아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농업재단은 농업인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이해 및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및 역사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봉사단은 2010년 중국 역사체험 견학과 농촌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베트남, 러시아, 몽골, 미얀마 등을 방문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책 속에 숨어 있는 예쁜 소망 찾기

농협재단은 2007년부터 ‘어린이 소망 가꾸기’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를 비롯한 교육물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중소도시 포함)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국 각지의 어린이 공부방 등이다. 농업재단은 2013년 4242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월간지 <어린이동산> 등의 도서를 지원해 어린이들의 지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했고, 농촌 소재 지역아동센터 1223개소에 운동용품을 지원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린이동산>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 종합교양지로서 농협이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14년 1월 농촌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동화책 7300권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급하기도 했다.

저 높은 꿈을 향하여

경북 울릉도, 전남 완도 지역 초등학생 60명이 2013년 7월

농협재단의 초대를 받아 서울에 왔다. 댁사에 걸쳐 도서지역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島)도(都)한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농업재단은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전국 4개 권역 농촌 초등학생의 문화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 행사들은 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문화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하이드림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이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09년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 농촌 지역 어린이 ‘교육캠프’를 열고 있다. 방학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4박5일 동안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는 방식이다. 2014년 7월에는 전국 15개 농촌지역 초등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교육캠프가 진행되었으며, 대학생 봉사단 300여 명이 전국의 캠프에 직접 찾아가 창의력과 자신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런가 하면 농업재단은 베트남 초등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농업과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베트남 박닌성의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20명을 초청해 서울 금천구의 영남초등학교 학생들과 국제교류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전통악기와 민속놀이, 텃밭 등을 직접 체험하고 각종 명소를 방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가정 지원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든다

그리운 고향으로 친정나들이 다녀오세요

멀리 타국으로 시집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랜 기간 고향과 친정가족들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농협재단이 나섰다. 농협재단은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농촌을 지키는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재단은 2007년도부터 매년 농촌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와 그 자녀에게 왕복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여 친정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0여 가정, 5000여 명이 모국을 방문했다. 이와 더불어 농협재단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앞으로 한국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농협재단은 이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든든한 재목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어린이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농협재단 인재육성 장학생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서로 멘토-멘티가 되어 자칫 방황하기 쉬운 아이들을 학업

과 봉사활동으로 이끌고 예비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7월에 열린 캠프에는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등 엄마의 나라 대학생 7명도 참석하여 아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엄마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증자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 희망송아지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문화 활성화

문화의 꽃이 활짝 피다



옛 농업인의 숨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다

5000년 농경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조상들의 땀과 지혜가 스며있는 농경문화를 통해 도시민과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는 1987년 농업박물관을 개관했다. 4500점이 넘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농업박물관에는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한편 농협재단은 농업박물관대학인 '두레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팜스테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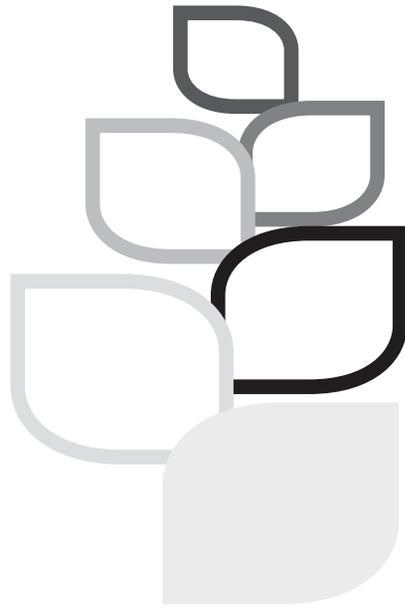
을 및 농협 사업장 견학을 통해 농협의 사업을 알리는 교양강좌인 두레학당은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매년 200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그대를 위해

농협재단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단체나 인물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농협문화복지대상'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협문화복지대상은 농업발전의 공로가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협재단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매년 연말이 되면 범 농협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소외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2013년에는 20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농협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신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 농촌과 도시가, 우리 모두가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농협은 언제나 선봉에 설 것이다.



Appendix

부록



NH농협금융 법인별 사회공헌 소개

NH농협금융은 국민과 고객의 행복한 금융생활을 위해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국민, 농업인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각 자회사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농협금융은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공헌을 더욱 확대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회공헌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은 지난 50년간 국민의 사랑 속에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경제·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객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캐피탈·선물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2년 3월 2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새로운 출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 6월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을 인수하여 4대 금융지주 반열에 오르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2014)

연간자원봉사 참여 : 243명

연간 자원봉사시간 : 1432시간

연간 1인당 자원봉사시간 : 11.1시간

자원봉사 지원제도

NH농협금융 사회공헌상 시상 : 금융지주 및 자회사 우수 자원봉사활동 개인 및 단체
사회공헌활동 유급휴가 (연간 3일 이내)

임직원 모금활동 및 캠페인

NH농협금융지주봉사단 조직 운영 : 8개조 편성 연중 봉사활동 실시
매월 일정액 봉사단 회비를 모금하여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슬로건

다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다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NH농협금융



사회공헌 대표사업

행복채움 실버 프로젝트

급속도로 증가하는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실시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
| 취약계층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경로당 지원 · 이산가족/국가유공자 지원 |
| 여가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층의 문화/건강 프로그램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연/경연대회 · 어르신 상자텃밭 가꾸기 |

꿈나무 행복채움교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농촌지역 특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임직원 패키지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 | |
|-----|---|
| 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꿈과 희망, 도전정신고취 등 |
|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RMC 등 금융교육 강사 참여 |
| 운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니어 선수 꿈나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니스/정구/골프 등 |

Now Healing 프로젝트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
|--------|---|
| 신체적 힐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암 등 장기 투병 어린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학교 봉사활동 등 |
| 정신적 힐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어린이 대상 심리치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100%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민족은행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서민금융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은행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은행의 핵심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과 농업인 복지 향상, 서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구조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NH농협은행은 고객의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제도

사회공헌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간 자원봉사 우수 사무소 및 우수 직원을 시상

임직원 모금활동 및 캠페인

자체적으로 활발한 모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사회공헌 대표사업

행복채움금융교실

NH농협은행의 <행복채움금융교실>은 663명으로 구성된 행복전도사가 다양한 고객니즈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에 금융교육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어르신 말벗 서비스

농협은행만의 특색 있는 봉사활동인 농촌 어르신 말벗 서비스는 콜센터 상담사 1400여 명이 매주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와 금융사기 대응법 등을 알려드리며 어르신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모두를 위한 행복한 금융, NH농협은행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100%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NH농협은행은 1961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으로 시작하여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NH농협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지난 53년간 한결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금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의 전부를 국내에 환원, 농업인과 서민, 소외계층,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NH농협은행은 매년 약 1000억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3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농업인과 서민,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되며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장학재단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단위 농특산물 축제와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에 아낌없이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의 주축인 NH농협봉사단은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쌀, 생필품 등을 구입해 수시로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힘이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참여 연인원)

분야	2012	2013	2014 (3/4분기)
지역사회·공익	9,992	73,799	58,973
학술·교육	1,081	708	215
메세나·체육	675	960	357
환경	3,086	4,625	2,452
글로벌	78	41	45
계	14,912	80,133	62,042

NH농협은행 김 주 하 은행장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50여 년의 축적된 보험업 경험과 277만여 명의 고객, 전국 5700여 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2년 3월 2일 민영보험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기준 자산 47.1조 원, 수입보험료 9.9조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대표 생명보험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고객사랑 1등 생명보험사' 실천을 목표로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제도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육성제도

부서·사무소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물품구입비, 식대, 차량의 임차료 등의 행사비 지원

사회공헌 대표사업

농촌의료지원사업

NH농협생명은 서울대학교병원과 농촌의료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2007년부터 농촌순회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NH농협생명에서는 농어촌 및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두'와 '두레'의 합성어인 '모두레'는 다같이 하는 농협의 정신과 상부상조라는 보험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NH농협생명은 농협의 근간이 농촌과 농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우리 농업인, 어려운 이웃을 내맘같이, 더 이로운 세상을 약속합니다.

사회공헌백서 발간을 통해 그동안 농협금융이 우리 농업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천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협의 협동조합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 3월 전문 보험사로 새롭게 출발한 NH농협생명 역시 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가치공유'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근본인 '상생'과 '협동'이 생명보험업의 본질과 연결되기에 농협생명은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회사, 고객, 그리고 사회를 아우르는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NH농협생명은 출범 이전(1960년대)부터 시작한 농촌순회 무료진료를 통해 농촌의 건강한 발전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임직원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을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레 어린이 금융·경제교실' 개최로 미래 금융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누는 기쁨, 행복한 동행'이라는 가치 아래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우리의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을 낼 수 있는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의 정성과 마음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구분	인원(명)	시간	1인당 자원봉사시간
임직원	966	6,161	6.38
설계사	2,184	2,664	1.22
계	3,150	8,825	2.80

※ 2014년 10월말 기준

NH농협생명 나 동 민 대표이사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3월 농협공제로부터 새롭게 출범한 전문손해보험사로, '고객의 행복과 함께 하는 명품 농협손해보험'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 행복 동반자로서의 점진적 성장의 틀을 만들어가며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 3월 차세대 IT 보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보험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의 대표 브랜드 '헤아림'과 슬로건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를 개발해 선포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객과 농업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거대재해 대응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등,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임직원 수 : 554명

연간봉사시간 : 4193시간

연간 인당 봉사시간 : 평균 약 7.6시간

사회공헌 대표사업

농촌사랑 1사촌 및 자매결연

'1사촌 자매결연'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활력있는 농촌을 가꾸어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都農相生) 운동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기계 안전물품 공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하고자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량용 경광봉 보급, 홍보책자 배급, 라디오 방송 및 사고예방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봉사활동

니눔의 기쁨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설날 만두빚기, 추석 송편빚기, 어르신 팥, 구순 잔치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나눔의 기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사회공헌활동 비전 하에 임직원 모두가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경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이후 농촌사랑 1사촌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상생을 추구해 왔으며 축사 화재 예방과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한 농촌환경 만들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 및 기쁨·태풍피해농가 긴급구호 등 어려운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웃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 헤아리는 사회공헌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의 본질인 '헤아림'을 마음에 품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김 학 현 대표이사





NH농협증권

NH농협증권은 1982년 고려투자금융(주)으로 출발해 30년 동안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습니다. 2006년 1월 농협중앙회에 인수되면서 농협금융의 일원이 되었고, 2012년 3월 NH농협금융지주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증권회사로 NH농협금융지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H농협증권은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증권사로 도약해 NH농협금융의 대표주자로 활약할 것이며 사회공헌활동도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에 걸맞게 선도할 것입니다.

임직원 모금활동 및 캠페인

NH농협증권은 매월 임직원들의 급여 끝잔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대표사업

사회공헌브랜드 '이룸(irum)'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NH농협증권은 사회공헌브랜드 '이룸(irum)' 선포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내 외부 고객, 주주,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룸(irum)'은 '뜻한 대로 되게 하다'는 의미인 '이루다'의 명사형으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뜻을 함께 이루겠다'는 NH농협증권의 사회공헌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우리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를 돕는 <우리 농축수산물 알고 먹어요> 책자 제작 외에도 NH농협금융 차원의 봉사활동인 '협동을 이룸', 1사촌 자매결연 마을을 지원하는 '이웃을 이룸', 자사 자원봉사 동호회 '여분이회'를 통한 '나눔을 이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이룸'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입니다.

NH농협증권 안 병 호 대표이사



CEO인사말

NH농협증권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협의 '나눔 경영'을 이어받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1사촌 자매결연 활동', '농가 태풍 및 수해 복구' 등 농협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한철, 연탄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사회공헌브랜드 '이룸(irum)' 선포를 통해 NH농협증권이 우리 농촌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공헌브랜드 론칭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한 다문화가정에 우리 먹거리 제대로 알리기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NH농협금융 자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시너지 또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NH-CA자산운용은 농협금융지주와 프랑스 아문디자산운용사(AMUNDI)의 합작으로 2003년 1월에 설립하였으며, 2014년 6월말 기준 16조 7000억원의 자산(수탁고)을 운용하고 있는 종합 자산운용사입니다. NH-CA자산운용은 '단순한 펀드매니저가 아닌 수익과 위험의 관리자'라는 운용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위한 최상의 투자서비스와 운용성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업계 최초로 펀드에 레버리지 개념을 도입한 'NH-CA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는 2013년 4월, 수탁고 1조원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대표 펀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CA자산운용은 투명하고 신중한 자산관리로 투자자의 투자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연간자원봉사 참여인원 : 66명
 연간 자원봉사시간 : 336시간
 연간 1인당 자원봉사시간 : 5.1시간

자원봉사 지원제도

매년 사회공헌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정, 시상

사회공헌 대표사업

아이사랑 드림캠프

'출발! 아이사랑 드림캠프'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역사, 문화, 경제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일본 문화 탐방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美 서부 명문대학을 방문했고, 2012년부터 중국 북경 탐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매년 농번기마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매년 혈액 부족시기에 맞춰 실시하는 헌혈 캠페인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헌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CEO인사말

튼튼한 농협의 브랜드와 글로벌 Top 10의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의 브랜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NH-CA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아문디(Amundi)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자산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의 사회공헌 철학을 깊이 공감하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와 아이사랑 드림캠프 등 NH-CA자산운용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폭넓게 수행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공용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자산운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H-CA자산운용 이태재 공동 대표이사(좌)
 NH-CA자산운용 필립 페르슈롱 공동 대표이사(우)





NH농협캐피탈

NH농협캐피탈은 2007년 3월 설립 이래 2008년 7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12년 3월 NH농협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초우량 여신전문회사의 비전 아래 '변화, 혁신, 고객가치 창조'의 슬로건을 실천하여 초우량 여신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기업금융 및 부동산금융, 신기술금융을 포함한 투자금융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규모화를 통한 성장, 경영관 리체제 강화를 통한 질적 내실 성장으로 초우량 캐피탈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연간자원봉사 참여 : 206명

연간 자원봉사시간 : 1420시간

연간 1인당 자원봉사시간 : 6시간

사회공헌 대표사업

1사촌 자매결연마을 일손 돕기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농산물직거래 · 일손돕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마을의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정분교 어린이 활동 지원 및 교류

1사촌 마을 단양군 대강면 장정분교의 학생들에게 <어린이동산>, 소년한국일보 보내기를 통한 교육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정기 봉사활동

배식봉사와 설거지, 청소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쌀, 사과를 전달하는 등 영등포역 인근 행려인과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회사는 서민금융지원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2009년부터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와 1사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봄 · 가을 및 재해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 1회 마을 주민들을 우리 회사에 초청하여 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1사촌 마을에 소재한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에 소년한국일보와 농협에서 발간하는 <어린이동산>을 보내는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행려인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정기적인 후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영등포역 인근 행려인과 독거노인 등 4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감장김치 담그기, 임직원 헌혈행사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캐피탈 김 중 화 대표이사





NH농협선물은 1997년 3월 민족자본인 농협중앙회의 100% 출자로 설립된 최초의 금융자회사입니다. 선진금융기법을 통한 금융선진화에 기여하고 선물거래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이래로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회사로서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NH농협선물은 파생상품전문회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제선물, 통화선물, 자수선물, 상품선물 중개와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농산물, 비철금속, 원유, 통화 등)을 중개해 주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MMF)을 판매하는 등 대한민국의 파생상품업계를 선도할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연간 자원봉사 참여 : 22명
 연간 자원봉사 : 120시간
 연간 1인당 자원봉사 : 2시간

임직원 모금활동 및 캠페인

당사의 임직원들은 매달 5000원씩 적립하여 연탄배달 봉사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대표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NH농협선물은 매년 겨울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기부 및 배달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NH농협증권과 함께 시작하여 이제 농협금융지주와 자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랑의 헌혈봉사 활동

NH농협선물은 2009년 이후 매년 여의도 소재 자회사들과 함께 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자의 의사에 따라 헌혈증을 기증받아 필요한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NH농협금융사회공헌백서의 첫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NH농협선물은 1997년 창립 이래 농촌 일손 돕기, 헌혈, 밥집 봉사, 연탄 나눔 등 농촌과 사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하고 있는 NH농협선물은 단순히 기부만이 아닌 같이 보람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H농협선물은 NH농협의 협동조합정신을 계승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NH농협금융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고객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H농협선물 김진규 대표이사





우리투자증권 김 원 규 대표이사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업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증권회사로 1969년 한보증권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자산관리 부문과 IB부문 그리고 트레이딩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증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005년부터 '밝은세상, 우리와 함께'라는 사회공헌활동 슬로건 아래 임직원 참여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증권사로서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2010년 11월, 사장 직속의 사회공헌사무국(現 사회공헌단)을 신설,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연간 참여인원 : 2975명 / 연간 자원봉사 : 총 8686시간 / 연간 1인당 자원봉사 : 3.2시간

자원봉사 지원제도

연간 우수 봉사단체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

임직원 모금활동 및 캠페인

'우리천사펀드'를 통해 매달 급여에서 회사와 임직원이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활동과 해외기후난민 아이들에게 직접 그린 티셔츠와 치료식을 후원하는 희망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대표사업

희망나무 장학금

2005년 이후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입학생 전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입학격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 사회봉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나눔문화 정착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내 모든 부서 및 영업점의 사회봉사단 설립에 나서 전 직원의 97%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설립된 사회봉사단은 9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사촌 자매결연

농촌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마을(2005년) 및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소용마을(2011년)과 1사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우리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자산보호와 증식을 위해 1969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산관리 부문뿐만 아니라 IB부문과 Trading부문에서도 국내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금융투자회사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축적한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업계가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NH농협증권과의 합병에 따라 2015년부터는 'NH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비바생명

1988년 부산생명을 모태로 한성생명, 럭키생명, LIG생명을 거치며 대한민국 생명보험업계에서 25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아비바생명은, '참여문화의 확대, 지역사회 균형 발전, 공동체 의식 함양'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 받는 생명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 : 1356시간

일인당 봉사시간 : 3.91시간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 690명

임직원 모금활동 및 캠페인

임직원 끝전모이기 운동을 통해 매월 직원들 급여액의 일부 금액을 절사하여 저소득층에 기부

사회공헌 대표사업

1사1촌 탄동마을 교류활동

2009년 충북 충주시 탄동마을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과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요리대회 후원 '오늘은 나도 요리사'

매년 4월 10일 '장애인의 날' 열리는 전국 장애인 요리경연대회에 2012년부터 대회 시상금 전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탈북가정 어린이 후원

탈북 어린이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제안 마일리지를 후원 단체에 기부하기는 한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인사말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은 우리 사회를 기업 활동의 토양이자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돕는 것은 기업의 영속과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인 동시에 기업 시민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우리사랑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고객 행복 + 가족 행복 + 사회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공익을 비롯한 4개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농상생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충북 충주시 탄동마을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2012년 10월에는 충주시장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아비바생명은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의미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일, 우리아비바생명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아비바생명 김 용 복 대표이사





NH저축은행

NH저축은행은 2014년 6월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일반자금 대출 등 여신업무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신업무를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예금,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신용질서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도영업을 실천하고,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

- 2014년 8월 농촌 일손 돕기 (경기도 양평) 5명
- 2014년 9월 농촌 일손 돕기 (인천 남동구) 12명
- 2014년 11월 연탄나눔 봉사활동 (남태령) 4명
- 2014년 12월 불우이웃돕기 기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공헌 대표사업

농촌 일손 돕기

농협의 근간이 농촌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 김 승 희 대표이사



CEO인사말

깨끗한 저축은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NH저축은행은 2014년 6월 27일부터 NH농협금융에서 인수하여 NH농협금융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NH저축은행은 서민을 위한 건전한 저축은행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업계 내 최고 수준의 BIS비율(2014년 9월말 기준 21.2%)과 업계 평균(17.4%)보다 2배 이상 낮은 연체율(8.11%)을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량 저축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매년 인근 복지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 NH농협금융에 편입된 이후에는 그룹 계열사와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나눔, 김장나눔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저축은행은 초우량 저축은행으로서 고객님께 사랑받고 이웃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NH농협금융의 아름다운 이야기

NH농협금융 사회공헌 이야기 '나눔과 채움'에 NH농협금융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사회공헌활동을 담았습니다.

NH농협금융은 농촌과 농업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금융교육, 고령화 시대에 소외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및 건강, 스포츠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으로 보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천하여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는 기본철학을 토대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NH농협금융 사회공헌 이야기 '나눔과 채움'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NH농협금융지주

주 소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기획·디자인 (주)다니기획